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PAPAYA STORY

외국인주민을 위한 토탈정보서비스 파파야 스토리

www.papayastory.com

지금 스마트폰에서 papayastory를 검색하세요

제320호 2026년 07월 01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영화동), 3층
인쇄인 장용호 경기도 부천시 수도로 164 (주)아이피디 / danews1@daum.net 후원계좌 경기다문화뉴스 110-408-662725 신한은행 <1쇄>



"다양한 국적과 문화 가진 이주민, 서로 이해하며 하나로 화합해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재수원교민회와 함께 '2026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재수원교민회 연합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 지역사회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송하성 기자

외국인주민도 올여름 가장 가까운 피서지는 우리 동네 도서관!



경기도 31개 시군 공공도서관에서는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도민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행사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외국인주민도 이번 여름에는 자녀와 함께 도서관에서 더위를 피해 보자.

공공도서관은 올 여름, 단순한 독서공간을 넘어 도민 누구나 문화 충전을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피서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서관은 7~8월 여름방학 기간 '심야도서관'을 운영해 밤샘 독서캠프를 진행한다. 또한 디지털 오아시스를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쉼터(LED 월·ASMR 음향)'를 마련해 도민들이 시원한 실내 공간에서 휴식과 문화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내 공공도서관에서는 재즈 인문학 공연, 낭독 음악회, 원화 전시를 비롯해 어린이 독서교실, 메이커스페이스 체험, 가족 음악회, 인형극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열린다.

평택시 지산초록도서관은 7월 24일 야간 시간대를 활용해 도서관 인근 숲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생태체험 프로그램 '달빛 따라 숲으로 가요'를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한여름 밤 숲속 생태를 관찰하며 색다른 독서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수원시 서수원도서관은 8월 3일부터 6일까지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그림책 작가와 함께 읽고 만들고 움직이는 '여름아 놀자! 그림책 예술놀이터'를 운영한다.

안성시 보개도서관은 말복인 8월 14일 자정까지 '야간개방 밤독(讀)깨비'를 운영하고, 구리시는 공공도서관 이용객을 위해 양심양산 대여소를 운영하며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에 나선다.

생활권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도서관도 폭염 대응의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경기도는 '작은도서관 무더위·혹한기 쉼터 운영 사업'을 통해 도내 작은도서관 340곳에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형 쉼터로 운영한다. 지원된 예산은 전기료 등 냉방비로 사용되며, 도민들은 가까운 작은도서관에서 시원하게 휴식을 취하며 책과 함께 여름을 보낼 수 있다.

윤명희 경기도서관장은 "기후변화로 폭염이 일상화되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이라며 "책과 문화가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도민들이 시원하고 유익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름철 독서문화 프로그램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서관 누리집(library.kr)과 각 시군 공공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국어 23면, 태국어 15면〉

파파야스토리

지자체별 지면 안내

언어별 지면 안내

섹션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수원 3~10 용인 11~13 구리 14~15 광주 16~18 양평 19 하남 20~21 광명 22~25 이천 26~27 평택 28~32

중국어 中文 2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5 러시아어 Русский 17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5, 15 영어(English) 17, 23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파파야스토리는 중국어 中文, 베트남어 Tiếng Việt, 러시아어 Русский 태국어 ภาษาไทย 영어 English, 한국어 등 6개 언어로 서비스 합니다〉

정책 Policy 2 생활정보 Information 7, 9, 22 나의 학습 My Study 12, 21, 24, 27, 30 이주배경청소년 7 외국인주민 5, 15, 17, 23 교육 Education 11 주거 Residence 17 여가 3, 18 취업지원 3, 25 보건 Health 6, 10, 20 도서관 Library 14, 15, 23 청년 2 행사 Event 4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식, 도민과 함께하는 검소한 열린 소통

7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1층 다산홀...도민 목소리 직접 듣는다



민선 9기 경기도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 취임식이 오는 7월 1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광교청사 1층 다산홀에서 열린다. 취임식은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감안해 검소하고 메시지가 중심인 열린 소통형 행사로 치러진다. 김준혁 제37대 경기도지사 취임식 준비TF단장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취임식 슬로건인 "다함께 시작, 당당한 경기"와 "1,420만의 뜻, 더 새로운 경기로" 라는 핵심 가치를 반영해 형식적인 의식 위주의 행사를 탈피하고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취임식을 만들기로 했다며 취임식 준비상황과 세부 프로그램별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준비위원회는 초청 인원은 국회의원, 도의원, 기관·단체장 및 공약 관련 도민 등 초청 인원을 400명으로 최소화했다. 초청 형식도 종이 인쇄물 대신 이미지 파일 형태의 모바일 초청장으로 대체하고, 사회자도 외부 인사가 아닌 도청 직원이 진행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절감했다.

취임식은 총 70여 분간 1부 공식 취임행사와 2부 도민과 함께하는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된다.

1부는 '도민과 함께 내딛는 첫걸음'을 주제로 도민 동반 입장, 도지사의 책무와 사명을 엄숙히 약속하는 취임선서와 민선 9기의 정책 비전을 담은 취임사 낭독 순으로 진행된다.

2부는 이번 취임식의 핵심으로 전체 시간의 절반 이상인 40분을 할애한 경기도형 타운홀 미팅 '대청(大聽)마루'로 진행된다.

'크게 듣고 바닥부터 높은 곳(마루)까지 살피겠다'는 의미를 담은'대청(大聽)마루'에는 취업준비 대학생과 예비 신혼부부, 청년 소상공인, 문화예술가, 여성 직장인, 경기도 기회기자단 어린이 등 도민 대표단 패널 50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추미애 당선인은 이들 도민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청년, 취업, 주거, 육아, 교통, 안전 등 민선 9기 경기도 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김준혁 취임식준비TF단장은 "크게 듣고 바닥부터 높은 곳까지 살피는 '대청(大聽)마루' 정신을 바탕으로,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선9기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미애 당선인은 취임식 당일 오전 8시 30분 현충탑 참배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한다. 추 당선인은 경기도청사로 이동해 인계인수서 서명을 마친 뒤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은 경기도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돼 누구나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다.

송하성 기자

최효숙 의원, 외국인노동자 입국 전 언어·문화·산업안전 등 사전적응 교육 제도화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이들이 국내 입국 이전부터 지역사회와 노동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전적응 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노동자가 입국 초기부터 겪는 언어 장벽과 산업현장에 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문화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는 기존의 사후 관리 중심 지원을 넘어 입국 이전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전적응 교육'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개정안은 ▲사전적응 교육 등을 기본계획에 반영 ▲교육 콘텐츠 개발·운영 근거 마련 ▲경기도 산업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비대면 교육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는 입국 전부터 경기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노동환경과 산업안전, 생활문화 등에 대한 정보를 미리 습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산업현장 적응은 물론 안전사고 예방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장 역시 외국인노동자의 초기 적응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여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생산성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효숙 의원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노동자 개인뿐 아니라 산업현장과 지역사회 모두를 위한 정책"이라며 "이번 조례는 입국 이전부터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선제적 예방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참여자 1만 1,300명 모집. 연간 120만 원 지원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과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참여자 1만 1,300명을 모집한다.

경기도는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모집 규모를 기존 1만 명에서 1만 1,300명으로 확대했다. 청년 복지포인트는 경기도 소재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 등에서 주 36시간 이상, 6개월 이상 근무하는 청년에게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으로 월 급여 385만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병역의무 이행자는 복무 기간만큼 신청 가능 연령이 최대 3년 연장된다.

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누리집(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기본 제출서류는 신청서, 근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이며 주민등록초본과 4대보험 가입 내역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전자증명서 서비스 활용 동의 시 자동으로 제출된다.

월 급여(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며, 동점자의 경우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최종 선정 결과는 8월 12일 발표될 예정이다.

지급된 복지포인트는 전용 온라인몰인 경기청년복지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상품과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1577-0014

송하성 기자



'다양한 언어로 수원 알린다' 수원시, 제7기 다(多)누리꾼 위촉

13개국 출신 60명 활동 시작…시정 홍보와 정책 제안으로 이주민 소통 강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는 25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제7기 이주민 시정홍보단 '다(多)누리꾼' 위촉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다누리꾼은 자국 언어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활용해 수원시 정책과 생활정보를 알리고, 이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전달하는 홍보단이a다. 수원시는 다누리꾼을 운영하며 이주민과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제7기 다누리꾼은 베트남·중국·우즈베키스탄·일본·필리핀·네팔·몽골 등 13개국 출신 60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2년간 ▲국가별 에스엔에스(SNS)를 활용한 시정 홍보 ▲이주민 관점의 정책 제안, 의견 수렴 ▲분기별 정례 회의와 지역 명소·문화체험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위촉식은 위촉장 수여, 활동 안내, 질의응답, 활동 포부 공유 등으로 진행됐다.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은 "다누리꾼이 수원시와 이주민 사회를 잇는 소통 창구이자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며 "내·외국인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포용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2026 하반기 수원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36명을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모집한다.

하반기 수원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은 ▲아기용품 지원사업 ▲효사랑 장수지팡이 만들기 ▲어린이 전문예술강사 양성 프로그램 ▲이주배경청소년 및 가족 상담·통번역 서비스 ▲찾아가는 우산수리센터 등 9개이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수원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8월 3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주 5일, 25~30시간 근무한다. 시급은 시간당 1만 320원이며, 매일 부대비 5000원을 지급한다. 주휴수당과 연차 유급휴일도 제공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7월 8일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물놀이부터 생태·문화 체험까지

7월 수원시 공원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세요!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여름을 맞아 시민들이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와 자연 체험,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다채로운 여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도시공원과 수목원, 도서관 등 곳곳에서 어린이와 가족, 반려인 등 다양한 시민이 시원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공원별 특색을 살린 생태·문화 콘텐츠를 마련했다.

무더위를 식혀줄 물놀이 프로그램이 시민들을 맞는다. ▲도시공원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7월 21일~8월 23일) ▲올림픽공원 '2026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7월 21일~8월 23일)를 운영한다. 새빛 어린이 워터파크에서는 물놀이 풀장과 함께 마술쇼, 풍선 버블쇼, 삐에로 매직 풍선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자연과 교감하는 생태프로그램도 풍성하게 열린다. ▲2일 광교호수공원 '곤충생태교실' ▲4일·12일 '광교 생태숲 탐사' ▲4일·18일 칠보산 '자연탐사대' ▲7월 한 달간 광교중앙공원 등 6개 유아숲체험원 '물은 어디서 왔을까?' ▲서울대수원수목원 생태프로그램이 시민들을 기다린다.

여름을 특별하게 만드는 문화 행사도 이어진다. ▲해우재문화공원 '제15회 해우재 황금똥 그림잔치' ▲만석공원 목공체험장 프로그램 ▲광교푸른숲도서관 '펫과 함께하는 푸른숲 책뜰' ▲수원화성 '달빛화담, 花談' ▲광교공원과 서호공원 등 4개 도시공원 피크닉존을 운영한다.

수목원에서는 여름 특별전과 기획전으로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일월수목원 '꽃에서 태어난 소녀, 엄지공주' ▲'나무가 만든, 수원의 마을' ▲'물속에 담은 수원의 여름' ▲영흥수목원 '헨젤과 그레텔: 유혹의 숲'을 만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다양한 국적과 문화 가진 이주민, 서로 이해하며 하나로 화합해요"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재수원교민회와 함께 '2026년 연합 명랑운동회' 개최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양해규)는 지난 6월 13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실내체육관에서 재수원교민회와 함께 '2026년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재수원교민회 연합 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국적과 문화를 넘어 지역사회 이주민들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은주 수원시 여성가족국장, 조인희 수원특례시의원, 이정섭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운영위원장 등 내외빈과 네팔, 몽골, 미얀마, 중국, 방글라데시, 베트남 등 13개국 교민회원, 지역사회 이주민, 자원봉사자 등 약 4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행사는 먼저 수원시외국인복지센터 베트남 무용동아리 '늘그리움'의 화려한 공연으로 막을 열었다.

양해규 센터장은 개회사를 통해 "명랑운동회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를 가진 이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오늘 행사가 경쟁보다 응원, 화합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은주 국장은 축사를 통해 "운동회에 참여한 많은 이주민 여러분의 가볍고 행복한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다"며 "수원시는 이주민 여러분과 행복하고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명진 수원중앙복지재단 대표이사는 환영사를 전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기념식 이후에는 버블쇼가 펼쳐져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아이들과 성인 참가자 모두 신비로운 비눗방울 공연을 함께 즐겼다. 점심식사 후에는 본격적인 명랑운동회가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A팀(몽골·방글라데시·인도·일본·중국·캄보디아·한국)과 ▲B팀(네팔·미얀마·베트남·인도네시아·태국·필리핀·팔레스타인)으로 나뉘어 다양한 경기와 레크리에이션에 참여했다.

행사장은 각국 참가자들의 열띤 응원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이주민들은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며 진정한 팀워크를 보여주었다.

수원중앙병원은 행사 당일 홍보부스 운영과 함께 앰뷸런스 및 의료 인력을 지원해 안전한 행사에 힘을 보탰으며, 전북은행도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외국인 주민들을 위한 금융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건강, 안전, 촬영, 경품 팔찌, 식사, 쓰레기, 화장실 등 행사 전반에 걸쳐 경험이 풍부한 센터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한편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 강한의원, 달구운바람, 수원중앙병원, 전북은행, 팔달산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하울실용음악학원, (사)한국CBMC 수원지회, 수원중앙침례교회 1장로회와 김영환, 노미령, 신용선, 유만수, 이기옥, 이춘화 후원자가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하며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했다.

이번 명랑운동회는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웃고 즐기며 하나가 된 이주민축제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송하성 기자












Công nhận kinh nghiệm làm việc trước đây đối vớ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huyển việc do bị đối xử bất công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사유로 이직하면 이전 경력 인정

Từ tháng 6 tới, hạn mức cho phép tuyển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E-7-4) tại khu vực nông thôn và ngư thôn sẽ được mở rộng đáng kể, từ mức 30% hiện nay lên tối đa 50%.

Ngoài ra, nhữ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buộc phải chuyển nơi làm việc do bị đối xử bất công như bị nợ lương, chậm trả lương hoặc bị bạo hành cũng sẽ được công nhận toàn bộ kinh nghiệm làm việc tại nơi làm việc trước đây. Nhờ đó, họ có thể thực hiện thủ tục chuyển đổi hoặc gia hạn thị thực mà không bị mất quyền lợi liên quan đến thời gian công tác đã tích lũy.

Bộ Tư pháp Hàn Quốc (Bộ trưởng Jeong Seong-ho) sẽ triển khai từ tháng 6 năm 2026 phương án cải thiện chế độ "Lao động có tay nghề (E-7-4)" với nội dung trọng tâm là giải quyết tình trạng thiếu hụt nhân lực kéo dài tại các cơ sở sản xuất, đồng thời tạo điều kiện để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hể làm việc và sinh sống ổn định tại Hàn Quốc.

Tuyển dụng thêm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tại khu vực nông thôn và ngư thôn

Trong thời gian qua, nhiều ý kiến từ thực tế cho biết các khu vực nông thôn và ngư thôn đang thiếu hụt lao động nghiêm trọng, nhưng dù muốn tuyển thêm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thì vẫn gặp khó khăn do giới hạn về số lượng lao động được phép tuyển dụng.

Để giải quyết khó khăn này, Cục Chính sách Xuất nhập cảnh và Người nước ngoài sẽ nâng hạn mức tuyển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theo diện thị thực E-7-4 trong các lĩnh vực nông nghiệp, chăn nuôi, lâm nghiệp và ngư nghiệp.

Trước đây, doanh nghiệp chỉ được phép tuyển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theo diện E-7-4 với số lượng tối đa bằng 30% số lao động Hàn Quốc đang làm việc. Tuy nhiên, trong thời gian tới, lĩnh vực nông nghiệp, chăn nuôi và ngư nghiệp sẽ được áp dụng "chính sách đặc biệt về hạn mức tuyển dụng", cho phép tuyển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E-7-4 lên tới 50% số lao động Hàn Quốc. Nếu một cơ sở sử dụng 10 lao động Hàn Quốc thì sẽ được phép tuyển dụng tối đa 5 lao động nước ngoài theo diện E-7-4. Ngoài ra, đối với các cơ sở nông nghiệp, chăn nuôi và ngư nghiệp quy mô nhỏ sử dụng từ 4 lao động Hàn Quốc trở xuống, quy định cũng được nới lỏng. Theo đó, bất kể tỷ lệ tuyển dụng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 bao nhiêu, các cơ sở này vẫn được phép tuyển dụng tối đa 2 lao động nước ngoài có tay nghề theo diện E-7-4.

Công nhận kinh nghiệm làm việc trước đây trong trường hợp phải chuyển việc bất khả kháng

Để chuyển sang thị thực lao động có tay nghề (E-7-4),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phải làm việc tại nơi làm việc hiện tại ít nhất 1 năm. Tuy nhiên, đã có nhiều trường hợp gặp khó khăn trong việc chuyển đổi sang thị thực này vì thời gian làm việc tại nơi làm việc trước đây không được công nhận.

Điều này thường xảy ra khi người lao động buộc phải chuyển nơi làm việc do các nguyên nhân ngoài ý muốn như doanh nghiệp tạm ngừng hoạt động hoặc đóng cửa, hoặc do bị xâm phạm quyền con người như bị bạo hành, nợ lương hay chậm trả lương.

Để bảo đảm người lao động nước ngoài làm việc chăm chỉ không bị bất lợi khi chuyển đổi sang thị thực lao động có tay nghề (E-7-4) hoặc khi gia hạn thời gian lưu trú, Chính phủ sẽ bổ sung quy định mới mang tên "Trường hợp đặc biệt trong việc tính thời gian công tác liên tục".

〈중략, 한글 기사 15면〉

파파야스토리

กรณี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เปลี่ยนงานด้วยเหตุอันไม่เป็นธรรม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ำงานก่อนหน้า

ตั้งแต่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นี้เป็นต้นไป เพดานการอนุญาตให้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กษะฝีมือ (E-7-4) ในพื้นที่ชนบทและชุมชนประมง จะได้รับ การปรับ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 จากเดิม 30% เป็นสูงสุด 50% นอกจากนี้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จำเป็นต้องเปลี่ยน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 เนื่องจากได้รับ การปฏิบัติอย่างไม่เป็นธรรม เช่น 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หรือการ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 ก็จะสามารถ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ำงานจาก สถานที่ทำงานเดิม และสามารถเปลี่ยนประเภทวีซ่าหรือต่ออายุวีซ่าได้ กระทรวงยุติธรรม (รัฐมนตรี จอง ซองโฮ) ได้จัดทำมาตรการปรับปรุงระบบ "แรงงานทักษะฝีมือ (E-7-4)" ซึ่งมีสาระสำคัญตามข้างต้น เพื่อแก้ไขปัญหาการ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เรื้อรังในภาคอุตสาหกรรม และเพื่อ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สามารถพำนักและทำงานได้อย่างมั่นคง โดยมาตรการดังกล่าวจะเริ่มบังคับใช้ในเดือนมิถุนายน ปี 2026

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กษะฝีมือในพื้นที่ชนบทและชุมชนประมงเพิ่มเติม

ที่ผ่านมา มีเสียงสะท้อนจากภาคปฏิบัติจำนวนมากว่าในพื้นที่ชนบทและชุมชนประมงที่ประสบปัญหาขาดแคลนแรงงาน แม้ต้องการจ้าง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มีทักษะเพิ่มเติม ก็ยังประสบความยากลำบากเนื่องจากข้อจำกัดด้านจำนว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ได้รับอนุญาต เพื่อแก้ไขปัญหา ดังกล่าว สำนักงานนโยบายตรวจคนเข้าเมืองและชาวต่างชาติ จึงได้ปรับเพิ่ม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ประเภทแรงงานทักษะฝีมือ (E-7-4) ที่ได้รับอนุญาตให้จ้างงานในภาคเกษตร ปศุสัตว์ และประมง

เดิมที นายจ้างสามารถ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ประเภทแรงงานทักษะฝีมือ (E-7-4) ได้ไม่เกิน 30% ของจำนวน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กาหลีที่จ้างงานอยู่ แต่ต่อไปในภาคเกษตร ปศุสัตว์ และประมง จะมีการใช้「ข้อยกเว้นเพดานจำนวนการจ้างงาน」ทำให้สามารถจ้างได้สูงสุด 50% กล่าวคือ หากมีการจ้า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กาหลี 10 คน ก็จะสามารถ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ได้สูงสุด 5 คน

นอกจากนี้ 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ด้านเกษตร ปศุสัตว์ และประมงขนาดเล็กที่มีการจ้างแรงงานชาวเกาหลี ไม่เกิน 4 คน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ผ่อนปรน ให้สามารถ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ประเภทแรงงานทักษะฝีมือ (E-7-4) ได้สูงสุด 2 คน โดยไม่ต้องคำนึงถึงสัดส่วนการจ้าง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 ที่กำหนดไว้

กรณีเปลี่ยนงานโดยหลีกเลี่ยงไม่ได้ จะได้รับการรับรองประสบการณ์การทำงานเดิ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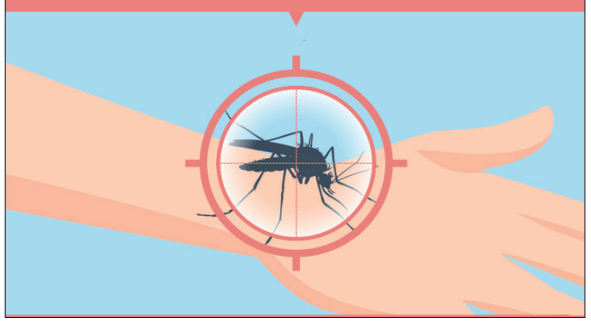
ในการเปลี่ยนเป็นวีซ่าทำงานประเภทแรงงานทักษะฝีมือ (E-7-4) 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ต้อง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ปัจจุบันเป็นเวลา 1 ปีขึ้นไป แต่ที่ผ่านมา มีกรณีที่แรงงานต้องประสบปัญหาในการเปลี่ยนประเภทวีซ่า เนื่องจากประวัติ "การทำงานใน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เดิม" ไม่ถูก นับรวม ในกรณีที่จำเป็นต้องย้ายงานเพราะสถานประกอบการหยุดดำเนินกิจการหรือปิดกิจการ, รวมถึงการถูกละเมิดสิทธิมนุษยชน เช่น การใช้ความรุนแรง หรือการค้างจ่ายค่าจ้าง

เพื่อไม่ให้แรงงานต่างชาติที่ทำงานอย่างสุจริตและตั้งใจได้รับผลเสียในการเปลี่ยนเป็นวีซ่าทำงานประเภทแรงงานทักษะฝีมือ (E-7-4) หรือในการต่ออายุระยะเวลาพำนัก กระทรวงจะจัดตั้ง「ข้อยกเว้นการคำนวณ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ทำงานต่อเนื่อง」ขึ้นใหม่ โดยในกรณีที่มีการเปลี่ยนงานเนื่องจากเหตุอันหลีกเลี่ยง...〈중략〉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질병관리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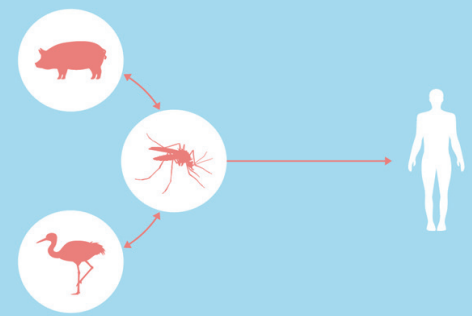
일본뇌염은 동물과 사람 사이의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입니다



질병관리청

일본뇌염이란?

일본뇌염은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 야생조류를 흡혈한 모기가 사람을 물어 감염되며, 사람간 전파는 없습니다.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매개모기 특성

-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습니다.
- 겨울철 돌틈이나 갈대숲에서 월동 후 봄철 남해안 지역에서 최초 출현하여 8~9월 전국적으로 분포하여 10월 말까지 관찰됩니다.
- 주로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에 서식하고 야간에 흡혈활동을 합니다.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주요 증상

- 매개모기에 물린 후 5~15일 잠복기를 거쳐 대부분 발열 및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 감염된 250명 중 1명은 바이러스가 뇌로 퍼지면서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합니다.
- 특히 뇌염의 경우 회복되어도 환자의 30~50%는 손상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 합병증 : 인지장애, 마비, 운동장애, 언어장애, 발작, 정신장애 등



질병관리청

일본뇌염 예방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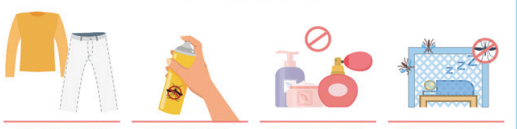
-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201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은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❶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❷일본뇌염 위험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에 대해서도 예방접종(유료)을 권장합니다.



질병관리청

모기물림예방수칙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 품이 넓은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 해주세요.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해 주세요.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해 주세요.

캠핑 등 야외 취침 시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해 주세요.

가정 및 주위환경



방충망 점검 또는 모기장을 사용해주세요.

집주변의 물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을 없애주세요.

법무부



국민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해

마약 범죄 없는 대한민국!

단속·수사 체계 강화

1

법무부 단속·수사 체계 강화

1 마약범죄 집중수사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현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권 범위가 확대되며 수사시스템이 재구축되었습니다.



2

법무부

1 마약범죄 집중수사

마약 전문 수사체계 확립

직접수사권 회복 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본부 구성을 통해
현저히 증가된 수사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직접수사권 회복 전·후 직인지 인원		직접수사권 회복 전·후 직구속 인원	
'20. 10. ~ '22. 9.	1,900명	319명	'20. 10. ~ '22. 9.
'22. 10. ~ '24. 9.	2,277명	621명	'22. 10. ~ '24. 9.
19.8% 증가		94.7% 증가	

3

법무부 단속·수사 체계 강화

2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마약범죄 수사시스템 복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의 확립으로
마약유통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수사정보를 일선 청에 송부했습니다.

대검찰청
E-drug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분석팀

텔레그램, 다크웹 등 마약 불법 유통 상시 모니터링 후, 일선 청에 수사정보 통보

마약유통 관련 정보 삭제·차단 요청	수사정보 송부
1,125건	8건

2024. 9. 까지

4

법무부 단속·수사 체계 강화

3 의료용 마약류 범죄 단속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 신설

2024년 2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신설하여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 및 취급 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5

법무부 단속·수사 체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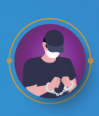
4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이란?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수사기관에 우리 마약수사관을 파견·상주시켜,
국내 마약밀수·유통사범 검거로 밝혀진 현지 마약발송조직을
실시간 국제 공조로 현지에서 검거하는 마약 밀반입 원점 타격 체계



국제 공조 주요 성과①
태국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총책 등 11명 검거



국제 공조 주요 성과②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로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총 4개명 검거·송환

주요 마약 발송국가의 마약청과 공조하여 마약 사범을 검거하며
밀수 봉쇄를 위한 국제공조를 확대합니다.

2024년 공조국가 | 확대('24. 10.)

2019년 공조국가 | 기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6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의 기획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지난 6월 17일 후원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2025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인 이날 전달식은 △센터 소개 및 활동 영상 시청 △상호간 인사 △가구 지원 대상자 가정 현황소개 △후원금(500만원)전달 기념사진촬영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 관계자는 "이주배경 가정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한국에서 잘 적응하고,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내 방은 내가 꾸민다'를 주제로 책상, 책장, 옷장, 침대 등 가구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굉장히 뜻 깊다. 친구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본부는 가구 구입을 위한 후원금뿐만 아니라 임직원 재능기부로 가구 지원 가정에 전기안전 점검과 개보수를 지원하며 센터 이용자들에게는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 안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관계자는 "올해도 이주배경 청소년들을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 9세~24세 이주배경 청소년 4가구를 선발하여 지원하겠다."며 "경기본부가 무료로 전기안전 점검과 개보수, 전기 안전교육까지 해주셔서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사례관리 실천을 기반으로 이주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에게 교육, 심리·정서, 자립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 역량을 계발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미등록 아동 위해 의료비를 지원해요

수원글청-수원특례시-JB우리캐피탈-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수원특례시·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4자 업무협약을 맺고 6월 1일부터 'PROJECT 169'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수원 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13세 이하 이주배경 미등록 아동과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 169'는 체류 자격이나 부모의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가 되지 않아 제도 밖으로 밀려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기본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민관협력 지원 사업이다.

명칭은 UN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16.9항 '2030년까지 출생 등록을 포함해 모든 사람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한다.'에서 착안해 명명됐다.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는 △미등록 임산부 대상 진료비 지원 1인 최대 100만원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선별검사비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건강검진비 1인 최대 40만원 △생후 18~65개월 영유아 구강검진 △0~13세 아동 의료비 및 약제비 1인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의료비 지원 대상은 미등록 이주아동 중 수원시에서 발급하고 있는 아동확인증을 발급받았거나, 발급 예정인 자에 한한다. 의료비 지원사업 항목 중 0~13세 아동 의료비 및 약제비는 1,2,3차 병원구분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있어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이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홈페이지(www.swglobalyouth.com)내 On-tact 상담 또는 전화 070-4125-3315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수원시 평생학습관서 당신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보세요

수원시에는 특별한 스승이 있다. 자신도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무지한 스승'이다.

'배우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다면 지식 전달자인 강사 없이도 함께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한 프랑스 정치철학자 자크 랑시에르의 저서 「무지한 스승」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시민 주도, 시민 기획 학습 방법론이다.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닌 '무지한 스승'들이 만나 함께 하는 학습 공동체를 지향한다.

'무지한 스승'은 유튜브, 경기도지식(GSEEK),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에 있는 강연, 다큐멘터리 영상 등을 활용해 시민이 배우고 싶은 주제에 대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수원시평생학습관 강의실, 도서관 등에 모여서 함께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대화형 공부다.

줌(ZOOM), 네이버밴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도 '무지한 스승'을 운영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언제든 참여할 수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지난해 8월부터 '무지한 스승의 만남' 방법을 활용해 스페인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공부 시범 사업을 시작했다. 전문 강사 없이 외국어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영상을 활용해 언어와 문화를 배웠다. 지난해 9월부터는 '무지한 스승의 만남 기획단'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5기까지 28명의 기획단이 활동하고 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건축 ▲브런치 작가 되기 글쓰기 ▲생성 인공지능(AI) 기술 ▲만다라 차트로 인생 계획 세우기 ▲대금 맛보기 ▲통통 튀는 벼룩 우쿨렐레 ▲테마 한국사 ▲2030 돈이랑 좋은 친구 되기 ▲우주 공부-코스모스 깊이 보기 등 시민이 배우고 싶은 주제의 학습 모임이 45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원시평생학습관은 24일 저녁 '무지한 스승의 만남' 활동 공유회를 온라인으로 열었다. 무지한 스승의 만남 기획단의 활동을 돌아보고, '나는 무엇을 왜 배우고 싶은지', '어떻게 영상을 찾고 공부에 활용했는지', '함께 참여한 시민들은 어떤 배움을 얻어 갔는지', '일상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등을 이야기했다. 향후 활동 계획도 공유했다.

무지한 스승의 만남 '그리스·로마 신화와 나'를 기획하고 운영한 표미영 기획단원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영상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큰 의미로 다가왔다"며 "무지한 스승의 만남을 운영하며 사람들과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수강 신청은 수원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learning.suwon.go.kr)에서 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자녀에게 맞는 대학진학정보를 한번에!

부모교육 외국인전형 대학입시 설명회



- 대상 : 16~22세 이주배경청소년 보호자 20명
  * 자녀 동반 참석 가능
- 일시 : 2026년 7월 25일(토) 10:00 ~ 12:00
- 장소 :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5층 강당
- 신청기간 : 2026.06.23.(화) ~ 07.22.(수)

설명회에서 알려드려요

- 외국인전형 및 다문화 관련 특별전형 안내
-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사항 및 지원 자격 설명
-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소개
  - 입학 과정, 학과 및 취업 연계 설명 등
- 개인별 맞춤형 질의응답 시간

지금바로 신청!

문의 070-4125-3315 정착지원팀 한희영 사회복지사

사랑의열매 경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수원시 출생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프로젝트 169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프로젝트 169 출생미등록 이주아동 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생활 의료비, 긴급 의료비 지원
0세~13세 아동 일반 외래 진료비·약제비는 물론, 입원·수술·검사비 등 건강보험 가입자에 준하는 수준의 혜택 지원

영·유아 맞춤형 건강검진 비용 지원
생후 1개월 이내 신생아 선별검사비 지원 및 생후 14일~71개월 영유아 대상 필수 건강검진 차수별 비용 지원

미등록 임산부 산전 진료 및 출산비 지원
미등록 이주민 임산부의 산부인과 검진비 및 안전한 출산을 위한 의료비 지원



아동 확인증



수원시 출생미등록 외국인 아동 확인증 발급
수원시 조례에 따라,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증 발급으로 의료·교육 보호 등 공공서비스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지원 내용



지원 대상	수원시 거주 미등록 이주민 가정의 0세~13세 자녀,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출산 지원
우선 대상	0세~13세 아동 우선 지원
신청 방법	센터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로 초기상담 신청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안수진 담당 031) 247-1324
홈페이지 www.swglobalyouth.com

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 JB금융지주 수원특례시 unicef KOREA for every child

JB우리캐피탈·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함께하는

수 원 시
미등록 이주 아동 지원

PROJECT 169
No Child Left Unseen

수원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13세 이하 이주배경 아동과 산모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 031) 247-1324

JB금융그룹 JB우리캐피탈 JB금융지주 수원특례시 재단법인 천주교수원교구유지재단 수원시글로벌청소년드림센터 SUWON GLOBAL YOUTH DREAM CENTER unicef KOREA for every child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mergency Ready APP

Please receive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n English.

请接收中文的灾害安全信息。

Vui lòng nhận thông tin an toàn thảm họa bằng tiếng Việt.

กรุณารับข้อมูล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จากภัยพิบัติเป็นภาษาไทย.

日本語で災害安全情報を受け取ってください。

Download App

Android iPhone

- Scan the QR code to download the Emergency Ready App.
- 扫描二维码下载 “Emergency Ready App”
- Quét mã QR để tải xuống “Emergency Ready App”
- สแกนคิวอาร์โค้ดเพื่อดาวน์โหลด "Emergency Ready App"
- QRコードをスキャンして、“Emergency Ready App” をダウンロードしてください



수원시, 공공예식장 4곳 운영...예비부부의 특별한 웨딩플래너!

표준가격 제시, 결혼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전문업체 상담 지원 '거품없는 결혼식'

수원시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는 김윤호씨(29)는 오는 11월 초 수원광교박물관 앞 광교역사공원에서 조금은 특별한 야외 예식을 하기로 결정했다.

원래 김씨 커플은 결혼을 준비하면서 결혼식은 생략하고 가족들끼리 식사로 대신해 예식비를 아끼기로 합의했다. 그러다 수원에 공공예식장이 운영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가능성을 확인한 뒤 이들은 일사천리로 계약을 했다.

예비 부부가 선택한 공공예식장의 이름은 '수원새빛뜰·광교'다. 김씨는 "수원의 공공예식장 덕분에 저렴한 예식비용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혼식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생략하려던 결혼식을 한다니 양가 부모님들도 좋아하셔서 모든 가족이 만족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별한 결혼식 날, 진짜 특별한 수원 예식장

수원에 살고 있거나 수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누구나 합리적인 가격으로 특별한 예식을 할 수 있는 수원의 공공예식장은 총 4곳 있다.

먼저 '수원새빛뜰 광교'는 광교역사공원을 활용한 공공예식장이다. 동수원IC 바로 옆 수원광교박물관 앞에 위치한 장소로, 봄가을이면 넓고 푸른 잔디밭에 싱그러움이 가득차는 공간이다. 주차장에서 광교천 다리를 건너면 곳곳에 아담한 돌담이 쌓여 있고, 길게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병풍처럼 둘러져 도심의 번잡함이 사라진다. 한가운데는 370년이 넘은 느티나무 보호수가 중심을 잡고 있어 그림 같은 장면 속에서 사랑의 서약을 맺을 수 있다. 2시간 동안 이용할 때 3만원으로 대관료 부담이 거의 없다. 100~200명이 모일 수 있고, 주차는 유료지만 135면으로 넉넉하다.

'수원새빛뜰 박물관'은 수원박물관 야외무대를 신랑과 신부를 위한 무대로 꾸며주는 예식장이다.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한갓진 길 한편 깊숙한 곳에 마련된 공간은 작지만 소담스럽다.

반원형으로 무대를 둘러싼 극장식 계단이 신랑 신부를 주인공으로 돋보이게 해준다. 잘 자란 나무를 배경 삼은 무대에 꽃장식까지 더해지면 푸른 잔디밭과 어우러져 화사하고 아기자기한 분위기가 더해진다. 단 3만원이면 8시간 동안 온전히 우리만의 예식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100~200명의 하객을 수용할 수 있고, 주차장 이용도 무료다.

'수원새빛뜰·수목원'은 장안구에 위치한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를 활용하는 공공예식장 이름이다. 통유리창으로 시원한 야외 풍경이 액자처럼 펼쳐지는 일월수목원 방문자센터는 밝고 개방된 공간감이 일품이다.

수원시의 공식 행사가 자주 열리는 인기 장소다.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공예식장으로 화장실이나 주차장 등 편의시설이 편리하다. 100명 이내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2시간에 15만원의 대관료가 발생한다. 다만 식물원이 휴관하는 월요일에만 대관할 수 있다. 평일 예식이 가능한 커플만 선택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다.

'수원새빛뜰 행궁'은 전통 혼례를 치를 수 있어 특별한 공공예식장이다. 화성행궁 근처에 있는 수원전통문화관 안마당에서 전통혼례 방식으로 진행 가능하다. 80명 이내의 소규모로 진행하며 피로연 장소도 인근 식당을 따로 잡아야 하지만, 전통적인 미와 방식을 추구하는 커플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관료는 없다.

◇부담스러운 예식 비용은 '다운', 행복은 '업'

박물관, 공원, 수목원 등 특별한 결혼식 장소들은 모두 수원의 공공기관을 활용했다는 특징이 있다.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과 예식 준비의 간소화를 위해 수원시가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기존에는 수원박물관 한 곳만 예식장으로 대관했는데, 수원시가 활용 가능한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올해 5월부터 4곳으로 늘어났다. 공공예식장 이용 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차별화된 장소에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해진 틀과 순서에 따라 찍어내듯 진행되는 일반 예식장과 달리 수원새빛뜰에서는 오로지 단 한 커플만을 위한 예식이 이뤄진다. 또 식순이나 구성 등을 모두 예식 당사자들이 원하는 대로 결정해 완벽한 우리만의 결혼식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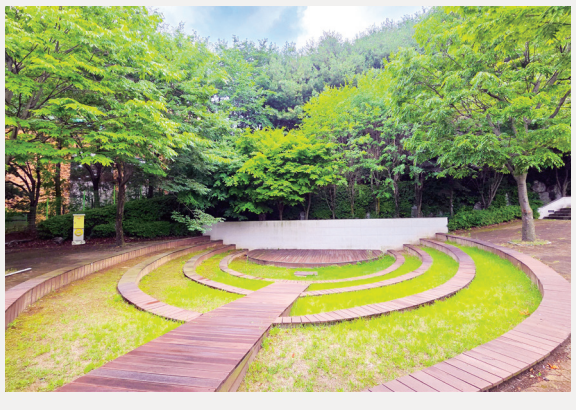
수원새빛뜰을 이용하면 복잡한 예식 준비를 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점도 장점이다. 장소를 대관해주고 나머지 절차는 모두 개별 진행하던 기존 방식을 대폭 개선해 전문업체가 종합 컨설팅을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지난 4월 공모를 통해 전문 협력업체 2곳을 선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수원새빛뜰 이용자들은 웨딩 컨설팅 경험이 많은 업체들의 인프라를 활용해 복잡한 절차를 수월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공공예식장은 비용면에서 유리하다. 저렴한 대관료가 뿐만 아니라 수원 공공예식 표준 가격이 공개돼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표준가격표에 기획과 진행비는 물론 야외 특수음향, 의자 등 비품을 실속형과 기본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꽃 장식(생화, 조화), 피로연(도시락, 케이터링) 등 선택사항도 표준가격을 공개해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준다. 스드메(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선택하면 된다. 만약 실속형으로 진행할 경우 200명 하객 기준으로 1천360만원의 비용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원 주요 일반 예식장의 평균 비용이 2천19만~2천379만원(200명 기준)임을 감안하면 1천만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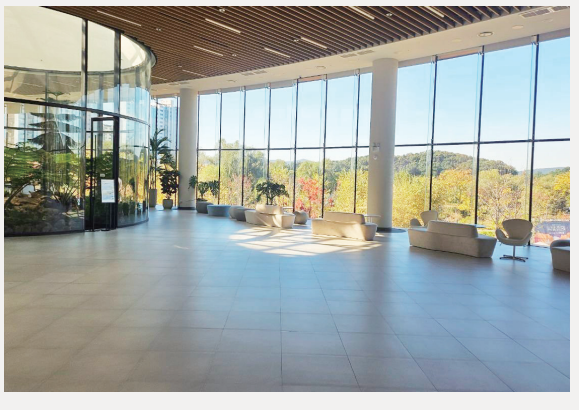
수원시 공공예식장을 예약하려면 일정과 원하는 장소를 확인한 뒤 새빛톡톡에서 사전 신청을 하면 된다. 이후 협력업체와 종합 상담을 한 뒤 대관을 신청하면 예식이 확정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특색과 매력이 있는 공공예식장에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예식을 진행할 수 있어 수원새빛뜰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결혼을 준비하는 전 과정에 맞춤형 지원을 더해 결혼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하는 환경 만들어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6년 상반기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 종강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지난 6월 21일 센터에서 '2026년 상반기 이중언어 부모·가족코칭' 7회기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

각 회기 18여 명 이상이 참석한 이 프로그램은 가정 내 긍정적인 소통과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가 영유아기부터 양국 부모의 언어와 문화유산을 자연스럽게 접하며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고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21일 진행된 코칭은 ▲부모-자녀 올바른 의사소통법 특강 ▲전통 산가지놀이를 활용한 이중언어 말놀이 ▲우리 가족 컵받침 꾸미기 등 세 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 부모교육에서는 다문화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의 벽을 허무는 '자녀와 의사소통 방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부모가 자녀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한국어와 부모 나라의 언어를 병행해 일상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구체적인 의사소통이 제시됐다. 이어 진행된 두 번째 세션 상호작용 놀이활동에서는 한국의 전통 놀이인 '산가지놀이(가느다란 막대를 쌓고 따내는 놀이)'를 활용했다. 참여 가족들은 막대를 하나씩 가져갈 때마다 부모 나라의 언어로 번갈아 가며 외치는 미션을 수행했다. 게임 형식을 빌려 자녀들이 이중언어에 대한 거부감 없이 놀이에 몰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마지막 시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컵받침 꾸미기' 미술 활동을 즐겼다. 가족의 소망이나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양국의 문자로 컵받침에 직접 써넣으며 자연스럽게 부모 나라의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국 출신 결혼이민자는 "아이에게 모국어를 가르쳐주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라 고민이었는데 오늘 배운 홈놀이를 통해 아이가 엄마 나라말을 재미있게 따라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센터 관계자는 "이중언어는 다문화가족 자녀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강점이자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앞으로도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양국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가족 코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영통구보건소, 전국 일본뇌염 경보 발령 안내...일본뇌염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



영통구보건소가 일본뇌염 예방수칙 홍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대구지역 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지난 6월 17일 일본뇌염 경보 발령했다.

이에 영통구보건소는 모기물림 예방수칙으로 ▲4월~10월까지 야간(일몰 직후~일출 직전)에 야외 활동 자제 ▲야간 외출 시 밝은 색 긴 옷, 품이 넓은 옷 착용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 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 사용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 자제 ▲실내 모기 침입 예방을 위해 방충망 정비 및 모기장 사용 ▲집 주변의 물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은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고인 물 없애기 등을 홍보했다.

일본뇌염의 증상으로는 초기에는 발열, 두통, 구토 등의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며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착란, 경련, 마비, 방향감각 상실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대상 아동(2013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보건소 측은 권고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만 18세 이상 성인 중 위험지역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예정인 경우, 비유행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위험국가 여행자 등에 대해서도 유료이지만 예방접종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국을 비롯해 방글라데시, 부탄, 인도, 네팔, 파키스탄, 스리랑카,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동티모르, 베트남, 중국, 일본, 북한, 대만, 러시아, 호주, 파푸아뉴기니 등 이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겠다. 한편, 수원시 보건소는 올해 '모기 없는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를 16개소로 확대해 운영중이다. 이 사업은 모기 유충과 성충을 동시에 방제해 재발생을 줄이고, 밀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집중적 관리를 통해 모기 발생원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둔 사업이다.

지난 2019년부터 시범 운영해 온 영통보건소에서는 모기 관련 민원이 크게 감소했다. 2025년 모기 민원은 2019년 대비 62% 줄었고, 광교호수공원과 망포1동 등 중점 관리 지역의 민원도 19건에서 5건으로 감소됐다.

수원시 보건소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 대상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 9개소, 2025년 12개소, 2026년에는 16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 올해는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등 16개소가 중점 관리 대상지로 선정됐다.

모기 퇴치는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임을 강조한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체계적인 방제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

용인시가족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해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다문화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12회기에 걸쳐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합니다'를 주제로 언어발달부모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부모의 정서적 안정과 자기돌봄이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마련됐다. 특히 육아와 가사 등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볼 여유가 부족했던 어머니들이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돌아보고, 행복한 양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행복과 자기돌봄, 스트레스 관리, 감정조절, 양육자신감 향상, 변화유지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되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참여자는 "나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니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와의 대화도 많아지고 남편도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다.

유지영 센터장은 "부모의 행복과 정서적 안정은 아이의 언어발달과 건강한 성장의 중요한 밑거름"이라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언어평가, 언어교육(1:1, 모둠), 언어발달 부모교육, 언어발달 상담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2027학년도 수시 대비 대학입시박람회 개최해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7월 11일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실내체육관에서 2027학년도 수시대비 대학입시박람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들이 수시전형으로 입학생을 모집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지역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변화하는 입시 환경에 맞춰 체계적인 진학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이번 박람회에서 ▲수시 대비 1대 1 진학 컨설팅 부스 ▲서울과 수도권 등 36개 대학별 상담 부스 ▲진로·진학 특별부스 등을 마련했다. 지난해 박람회에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진학 컨설팅 부스는 전년 52개에서 70개로 늘어났다. 70명의 경기진학정보센터 소속 현직 교사들이 현장에 나와 6월 모의고사 성적과 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수시 전략을 세우도록 돕는다.

이와 별개로 예비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생기부 분석' 부스도 마련된다. 생활기록부를 AI로 분석한 뒤 입시 때 지원할 만한 맞춤형 전공과 전형을 추천해준다.

진학 컨설팅과 AI 생기부 분석을 받고 싶은 참가자들은 6월 29일 오전 9시부터 용인특례시 대학입시 박람회 누리집에서 미리 신청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한부모가족 친밀감 향상 위해 떠나요! 용인시가족센터, 함마음캠프 '우리들의 대잔치'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센터장 유지영)는 지난 6월 12일부터 13까지 1박 2일간 한부모가족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함마음캠프 '우리들의 대잔치'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한부모가족 총 14가정 34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는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족 간의 정을 나누고 소통하는 특별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남이섬, 양평 더힐하우스, 가평 양떼목장 등 수도권 명소를 방문해 자연을 만끽했다. 특히 남이섬 공예원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머그컵 페인팅 체험'을 통해 세상에 하나뿐인 우리 가족의 기념품을 만들며 뜻깊은 추억을 쌓았다.

또한, 저녁 시간에 진행된 레크리에이션은 가족 간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한층 더 높이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캠프에 참여한 모든 가정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캠프는 용인도시공사에서 150만원을 후원해, 여느 때보다 풍성하고 질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가족들은 "아이와 단둘이 가족여행은 처음이었는데, 너무 좋은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공간과 멋진 시간을 선사해 주셔서 감사하다.", "아이에게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와 함께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용인시가족센터 관계자는 "이번 함마음 프로그램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지속적으로 운영되어 참가자들의 심리적 지지체계를 든든히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생활과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관련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용인시가족센터(☎ 070-7475-920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용인시에서 설립하고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용인시가족센터는 대표적인 가족복지시설로, 용인시 가족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등의 전문 가족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이지은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언어발달지원사업 참여자모집

welcome!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사업개요

사업개요

맞춤형 언어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 및 건강한 성장 지원

주요사업

언어 평가, 언어 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

서비스운영

언어교육: 주2회 회당 40분 수업
교육내용: 어휘, 구문, 조음, 읽기, 말하기
부모교육: 교육 상담 및 가정내 언어촉진 교육

대상자

지원대상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및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족, 난민, 재외동포, 북한이탈주민

우선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52%이하)
한부모, 맞벌이, 다자녀, 장애, 질병가구

제외대상

유사 언어치료 서비스 이용자
방문교육 자녀생활서비스 중복이용자

이용안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문의 및 신청: 070-7477-8543, 070-7475-9203
장소: 용인시가족센터, 처인구청 및 지역 내 외부기관

기타안내

센터 내 교육 우선, 가정방문 불가
외부기관 연계 시 수업을 위한 별도 장소 필요
기본 6개월, 최대 1회 연장 (총 12개월)
희망 요일·시간 및 장소에 따라 대기기간 발생

이용절차

사업신청 > 초기평가 > 대상자선정
언어교육 > 사후관리 > 프로그램 신청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 패키지사업

귀화면접시험 대비

귀화면접 핵심 질문 집중 연습!

대상 용인시 거주 결혼이민자(F-6, F-5) 한국어능력 중급이상 10명
※ 신규 참여자 우선, 기존 참여자 선착순!

일시 2026.05.06(수)~08.07(금)
매주 수, 금 14:00~16:00 (총 25회기) ※ 05.29(금), 공휴일 제외

장소 실시간 온라인(ZOOM)

내용 국적취득을 위한 실전 면접 준비(모의 면접 등)
※ 귀화면접시험 : 필기시험 없이 한국어로 진행되는 국적취득을 위한 구술면접

신청방법 아래 2가지 모두 신청해야 신청완료!(QR코드 스캔)
① 용인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입 후 프로그램 신청
(결혼이민자 이름으로 신청!)
② 구글폼(온라인) 신청

① 홈페이지 신청 ② 구글폼 신청

문의 가족서비스팀 070-7477-8540

용인특례시 YONGIN SPECIAL CITY | 용인시가족센터

용인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Power Up!

우리 아이 신체 지능 리더, 뉴스포츠 마스터!

모집 기간 2026년 6월 15일(월) ~ 선착순 마감 시

모집 대상
A반 : 초등학교 저학년(1-3학년) 12명
B반 : 초등학교 전학년(1-6학년) 12명
신청 시 모든 회기 일괄 신청되오니,
5회기 이상 참여 가능한 경우 신청 부탁드립니다:)

[A반 신청]

장소 용인시가족센터 4층 강당

일시
A반 : 7-9월 중 월요일 16:30-17:10 (8회기)
B반 : 7-9월 중 목요일 16:30-17:10 (10회기)
* 자세한 일시 및 장소, 내용은 시간표를 꼭!! 확인 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B반 신청]

신청 방법
[보호자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1. 보호자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가족구성원 추가 (자녀 정보 입력)
1.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신청하기 (가족성원 추가 - 자녀 선택하여 신청)
[자녀 계정으로 신청하는 경우]
자녀 아이디 로그인 후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 - 신청하기

문의 가족서비스팀 070-7477-9202

용인특례시 |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Power Up!

우리 아이 신체 지능 리더, 뉴스포츠 마스터!

A반(초등 저학년)		B반(초등 전학년)	
날짜 및 장소	활동 내용	날짜 및 장소	활동 내용
7/6 (월) 4층 강당	탈출! 보물섬	7/2 (목) 4층 강당	보드판 컬링 팀전
7/13 (월) 4층 강당	후프 속의 안전지대	7/9 (목) 4층 강당	플라잉디스크 골프
7/20 (월) 4층 강당	꼬리 뺏기 대모험	7/16 (목) 4층 강당	왕 피구(King)
7/27 (월) 4층 강당	지그재그 반응 레이스	7/23 (목) 4층 강당	디스크 옙(Yeb) 경기
8/24(월) 4층 강당	한 발 깽깽이 레이스	7/30 (목) 4층 강당	스캐터볼 팀 매치
8/31 (월) 4층 강당	선 따라 피구	8/20 (목) 4층 강당	보드판 컬링 챔피언
9/7 (월) 4층 강당	동물 구출 대작전	8/27 (목) 4층 강당	복합 전술 피구
9/14 (월) 4층 강당	저학년 종합 활동	9/3 (목) 4층 강당	디스크 타겟 리그
		9/10 (목) 4층 강당	스캐터볼 마스터
		9/17 (목) 4층 강당	태그 및 피구 종합전

용인특례시 | 용인시가족센터 YONGINSI FAMILY CENTER | 사회복지법인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공식 출범...전국 30개 기관 참여

민관협치 거버넌스로 지속가능한 이민·노동정책의 새로운 전환 모색

전국의 이주민 지원기관들이 참여하는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가 6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식 출범하고, '이민·노동정책의 대전환기, 민관협치 거버넌스의 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는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서울시 외국인주민센터, 경기도 외국인복지센터, 경남·부산지역 이주민 지원기관 등 전국 30개 기관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로, 현장 중심의 정책 제안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다.

1부 창립식은 이영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국민의례와 창립취지 소개, 공동대표 인사말, 축사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철승 공동대표와 김재업 공동대표가 협의회의 출범 취지와 비전을 소개했으며, 이학영 국회부의장, 전현희 국회의원,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축사를 통해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지속가능한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어 진행된 2부 정책토론회는 김용국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공동대표(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전국 이주민 지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이민정책과 외국인력 정책의 발전 방향, 민관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행사 마지막에는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 창립선언문을 낭독하며, 이주민의 인권과 사회통합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이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의 이주민 지원기관이 연대하여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전국이주민센터협의회는 앞으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제안과 연구,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사회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하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이민사회 조성을 위해 활동해 나갈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용인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요리쿡조리쿡 행복한밥상' 진행



지구촌사회복지재단 용인시가족센터는 6월 18일부터 7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반과 오후반으로 나누어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요리 프로그램 '요리쿡조리쿡 행복한밥상'을 진행한다. 용인기흥평생학습관과 연계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이 다양한 요리를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요리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참여자 간 자연스러운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적응 및 정서적 지지 체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요리를 배울 수 있어 즐거웠다", "다른 참여자들과 함께 요리하며 친해지는 시간이 되었다", "가족에게 직접 만들어 줄 수 있어 자신감이 생겼다"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특히 단순한 요리 교육을 넘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용인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여름방학 야간 생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여름방학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지생태공원에서 야간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용인시는 폭염으로 야외활동이 어려운 계절적 여건을 반영해 비교적 활동이 용이한 야간에 아이들이 자연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도록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깜깜한 숲속 누가 살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7월부터 8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예약은 24일부터 용인시통합예약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아이들은 야간 자연환경 속에서 곤충 관찰·채집, 밤하늘 관찰 등 다양한 체험활동에 참여한다.

낮과는 다른 공원의 생태를 직접 살펴보며 자연의 변화와 생명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흥미로운 체험을 통해 생태 감수성과 탐구심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야외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공원이 단순한 휴식공간을 넘어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은 기자

용인특례시, 용인자연휴양림 야영장 재개장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5일 지역 대표 산림 휴양 시설인 용인자연휴양림의 야영장 정비를 마치고 재개장했다.

용인시는 지난 4월 8일부터 이달 24일까지 6억 5000만 원을 들여 기존 야영장의 낡은 덱(deck)을 정비하고, 주변의 쓰러질 우려가 있거나 죽은 나무 등을 제거했다. 이번 정비로 시는 16㎡ 10곳, 36㎡ 15곳 등 기존 야영장 25곳 가운데 16㎡ 2곳, 36㎡ 4곳의 덱을 재설치했다. 기존 어린이 놀이터도 낡은 어린이 놀이시설도 철거하고, 조합놀이대, 미끄럼틀, 그네 등을 새로 조성했다.

이지은 기자

구리시립도서관, 여름방학 독서 문화 프로그램 풍성

여름방학 무더위를 잊게 할 도서관 속 특별한 배움과 즐거움 확인

구리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과 함께 알차고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도서관 4개소에서 독서와 체험을 결합한 다채로운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각 도서관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로 구성됐으며, 어린이들이 읽고 만들고 경험하는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고력과 문해력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인창도서관

인창도서관은 7월 18일부터 8월 1일까지 초등학생의 문해력 향상을 위한 글쓰기 강좌인 「신문으로 배우는 시사 토론 논술」과 「초등 일기 쓰기」를 비롯해, 책 읽기를 통해 과학 원리를 배우는 「책에서 꺼낸 과학실험실」, 「그림책 오감 놀이」, 「맛있는 독서 요리」 등 다양한 독서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토평도서관

토평도서관은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독서와 놀이, 예술 체험을 결합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책 읽기와 보드게임을 접목한 「책 퐁당! 보드게임」을 비롯해 그림책을 바탕으로 소리와 감정을 탐색하고 나만의 음악을 만들어 보는 「이야기가 있는 AI 음악 교실」, 세계 전래동화를 인형극으로 만나며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배우는 「1인 인형극으로 만나는 세계 전래동화」 등을 선보인다.

교문방정환도서관

교문방정환도서관은 7월 29일부터 8월 12일까지 「어린이 독서 코칭」, 「그림책 여름 향기 연구소」, 「시원한 여름 만들기」 등 책 읽기와 다양한 독후활동을 접목한 오감 만족 프로그램을 운영해 어린이들의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을 지원한다.

갈매도서관

갈매도서관은 8월 3일부터 8월 26일까지 어린이와 성인을 대상으로 총 7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평일에는 「DIY 미니어처 만들기」, 「경제 보드게임」, 「어린이 작사·작곡 클래스」 등 창의력과 사고력 향상을 위한 융합형 강좌를 진행한다. 주말에는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성인 대상 「자개 초인종 만들기」 일일 강좌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구리자원순환교육센터와 연계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 「분리배출 놀이와 바다 유리 목걸이 만들기」를 운영해 자원순환의 중요성도 알릴 예정이다. 한편, 각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구리시립도서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프로그램별 접수 기간과 세부 내용은 도서관별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지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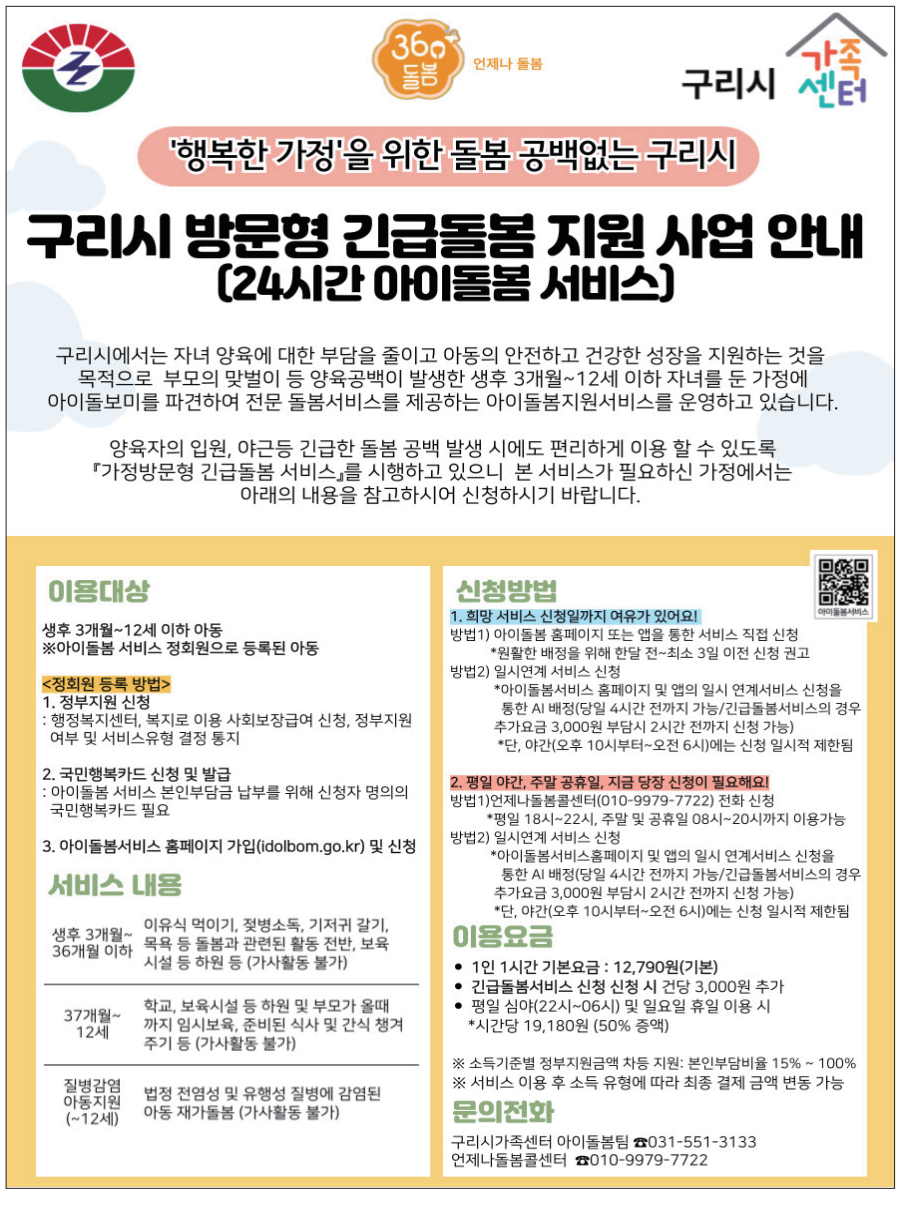
AI 융합 메이커 교육 과정 수강생 모집해

구리시는 7월 1일부터 「2026년 AI 융합 메이커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역량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시민들의 미래 대응 능력을 높여 구리시의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2026년 AI 융합 메이커 교육과정」은 인창도서관 '꿈꾸는 공작소'와 연계해 운영되며, 기초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참여자들은 인공지능(AI) 시대의 흐름을 이해하고 로봇, 음악, 사물인터넷(IoT) 등 다양한 분야를 접목한 실습 중심의 융합 교육을 통해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은 물론 일자리와 지역사회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받게 된다.

031-550-2186 이지은 기자



'청년내일센터' 입주기업 모집

예비 창업자 등 최대 5년간 입주 가능

구리시 청년내일센터는 오는 7월 16일 오후 12시까지 「2026년 하반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센터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공간 제공을 비롯해 창업 교육, 관계망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입주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생활 근거지를 둔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일 기준 5년 이내의 기업이어야 한다. 이번 모집에서는 상주 기업 4개 팀 내외와 비상주 기업 10개 팀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입주기업을 선정한다.

모집 분야는 ▲정보 기술(IT)·생명공학기술(BT)·문화콘텐츠기술(CT)·나노기술(NT) 등 기술 기반 개척 기업 ▲그린(디지털) 뉴딜, e-커머스, 첨단식품 기술, 도시농업, 펫테크, 부동산 정보 기술 등 특화 분야 ▲교육·사회복지·서비스 등 일반 창업 분야이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최대 5년간 청년내일센터에 입주할 수 있으며, ▲입주 사무공간 및 회의실 등 시설 무상 이용 ▲창업 조언 및 전문 상담 ▲로고·홍보영상 제작 지원 등 창업 전 과정에 걸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청년 창업 기업이 초기 창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무공간 제공부터 상담, 관계망까지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라며 "창의적인 생각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청년 창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모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청년내일센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청년내일센터(☎031-557-9980)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외국인 노동자가 부당한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이전 경력 인정

법무부,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확대 등 E-7-4 취업비자 제도 개선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허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연장할 수 있게 바뀝니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산업현장의 만성적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2026년 6월 시행합니다.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을 추가 고용

그동안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에서는 숙련된 외국인 직원을 더 고용하고 싶어도 고용허용 인원 제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농축어업에서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을 상향합니다.

기존에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까지만 숙련기능인력(E-7-4)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농축어업 분야에서는 「고용허용 인원 특례」를 적용해 최대 50%까지 고용을 허용합니다. 내국인을 10명 고용했다면 외국인을 5명까지 고용하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국민 고용 인원이 4인 이하인 영세 소규모의 농축어업 사업장은 외국인 고용허용 비율과 관계없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을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불가피한 이직은 이전 근무 경력 인정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 변경하려면 현재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지만, 사업장 휴·폐업, 폭행·임금체불 등 인권침해로 어쩔 수 없이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근무' 경력이 사라져 취업비자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로의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가피한 사유(휴·폐업, 부당처우 등)로 직장을 옮긴 경우 '이전 직장의 근무' 기간까지 근속기간으로 인정하는 「근속기간 산정 특례」를 신설합니다.

해당 특례는 숙련기능인력(E-7-4) 취업비자 변경과 체류기간 연장에 필요한 "1년 이상 근무중인 기업 추천"과 "현 근무처 3년 이상 근속 가점' 요건에 적용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 변경이나 연장 시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취업비자 제도 개선안은 「지역특화 숙련기능인력(E-7-4R)」 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민생 경제와 산업현장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트남어 5면, 러시아어 17면, 태국어 5면, 영어 23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파파야스토리

สถานที่คลายร้อนที่ใกล้ที่สุดในช่วงฤดูร้อนปีนี้ คือห้องสมุดในชุมชนของเรา!

ห้องสมุดสาธารณะใน 31 เมืองและอำเภอของ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จัดกิจกรรมและโปรแก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 เพื่อต้อนรับช่วงปิดภาคเรียนฤดูร้อน และฤดูกาลท่องเที่ยว ให้ประชาชนสามารถหลีกหนีอากาศร้อนได้ ในช่วงฤดูร้อนนี้ ขอเชิญชวนผู้อยู่อาศัยชาวต่างชาติให้พาบุตรหลาน มาหลบร้อนที่ห้องสมุดเช่นกัน

ในช่วงฤดูร้อนปีนี้ ห้องสมุดสาธารณะไม่ได้เป็นเพียงพื้นที่สำหรับอ่านหนังสือเท่านั้น แต่ยังคาดว่าจะทำหน้าที่เป็น "แหล่งพักผ่อนเชิง วัฒนธรรมแบบครบวงจร" ที่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มาเติมเต็ม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ได้

ห้องสมุด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จะ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 "ห้องสมุดยามค่ำคืน" ในช่วงปิดภาคเรียนฤดูร้อนเดือนกรกฎาคมถึงสิงหาคม พร้อมจัดค่าย อ่านหนังสือตลอดทั้งคืน นอกจากนี้ ยังจะจัด "พื้นที่พักผ่อนมีเดียอาร์ต (กำแพง LED และเสียง ASMR)" ภายใต้แนวคิดโอเอซิสดิจิทัล เพื่อให้ประชาชนได้พักผ่อนและ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ภายในพื้นที่ปรับอากาศที่เย็นสบาย

ห้องสมุดสาธารณะทั่วจังหวัดจะจัดโปรแกรม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ที่หลากหลาย เช่น การแสดงดนตรีแจ๊สเชิงมนุษยศาสตร์, คอนเสิร์ตอ่านทำนอง เสนาะ, นิทรรศการภาพวาดต้นฉบับ, รวมถึงห้องเรียนส่งเสริมการอ่านสำหรับเด็ก, กิจกรรมเมกเกอร์สเปซ, คอนเสิร์ต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 และการแสดงหุ่นเชิด เป็นต้น

ห้องสมุดจีซันโช-รก เมืองพยองแทก จะจัดกิจกรรมเชิงนิเวศ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ในชื่อ "ตามแสงจันทร์เข้าสู่ผืนป่า" ในช่วงเวลากลางคืนของวันที่ 24 กรกฎาคม ณ ป่าใกล้กับห้องสมุด ผู้เข้าร่วมจะได้สังเกตระบบนิเวศของป่าในค่ำคืนกลางฤดูร้อน พร้อมสัมผัสประสบการณ์วัฒนธรรม การอ่านในรูปแบบที่แปลกใหม่

ห้องสมุดซอซูวอน เมืองซูวอน จะจัดกิจกรรม "ฤดูร้อน มาเล่นกันเถอะ! สนามศิลปะหนังสือภาพ" ระหว่างวันที่ 3 ถึง 6 สิงหาคม สำหรับนักเรียนชั้นประถมศึกษาปีที่ 1~2 โดยเด็กๆ จะได้อ่าน สร้างสรรค์ผลงาน และเคลื่อนไหวร่วมกับนักเขียนหนังสือภาพ

ห้องสมุดโบแก เมืองอันซอง จะเปิดให้บริการ "ห้องสมุดกลางคืน บัมดกแกบี" จนถึงเวลาเที่ยงคืนของวันที่ 14 สิงหาคม ซึ่งตรงกับ วันมัลบก (วันสุดท้ายของช่วงซัมบก) ขณะที่เมืองกูรีจะเปิดจุดให้ยืมร่มกันแดดแบบบริการตนเองสำหรับผู้ใช้ห้องสมุด เพื่อช่วยป้องกัน การเจ็บป่วยจาก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

ห้องสมุดขนาดเล็กที่ตั้งอยู่ใกล้พื้นที่อยู่อาศัยก็มีบทบาทสำคัญในการรับมือกับ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เช่นกัน 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สนับสนุนค่าใช้จ่ายด้าน เครื่องปรับอากาศและเครื่องทำความร้อนให้กับห้องสมุดขนาดเล็ก 340 แห่งทั่วจังหวัด ผ่าน "โครงการการดำเนินงานห้องสมุดขนาดเล็กเป็น ศูนย์พักพิงในช่วงอากาศร้อนจัดและหนาวจัด" และเปิดให้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ใช้เป็นพื้นที่พักผ่อนสาธารณะได้ งบประมาณที่ได้รับการสนับสนุน จะนำไปใช้เป็นค่าไฟฟ้าและค่าใช้จ่ายด้านการทำความเย็น โดยประชาชนสามารถพักผ่อนในห้องสมุดขนาดเล็กที่อยู่ใกล้บ้าน พร้อมใช้เวลา ในช่วงฤดูร้อนกับการอ่านหนังสือได้อย่างสบาย

ยุน มยองฮี ผู้อำนวยการหอสมุดจังหวัดคยองกี กล่าวว่า "ในสถานการณ์ที่คลื่นความร้อนจากการเปลี่ยนแปลงสภาพภูมิอากาศกลายเป็น เรื่องปกติ ห้องสมุดคือพื้นที่ที่ประชาชนทุกคนสามารถพักอยู่ได้อย่างปลอดภัยและสะดวกสบาย" พร้อมกล่าวว่า "หวังว่าประชาชนจะได้ใช้ เวลาช่วงฤดูร้อนอย่างเย็นสบายและเกิดประโยชน์ ผ่านกิจกรร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ผสานทั้งหนังสือและวัฒนธรรมเข้าด้วยกัน"

ทั้งนี้ 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รายละเอียดเกี่ยวกับ...

〈중략〉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광주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함께 1박2일 '온가족 소통캠프' 진행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이천시 자연나라에서 다문화가족 23가정, 총 78명을 대상으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합을 위한 '온가족 소통캠프'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날 캠프에 참여한 부모들은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가족역할교육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와 소통의 중요성을 배웠으며 자녀들은 또래 친구들과 교류하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쌓았다. 또한 참여 가족들은 물놀이와 다양한 액티비티, 가족 명량운동회, 레크레이션 등에 참여하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가족에게 미처 전하지 못했던 마음을 카드에 적어 전달하며 서로의 진심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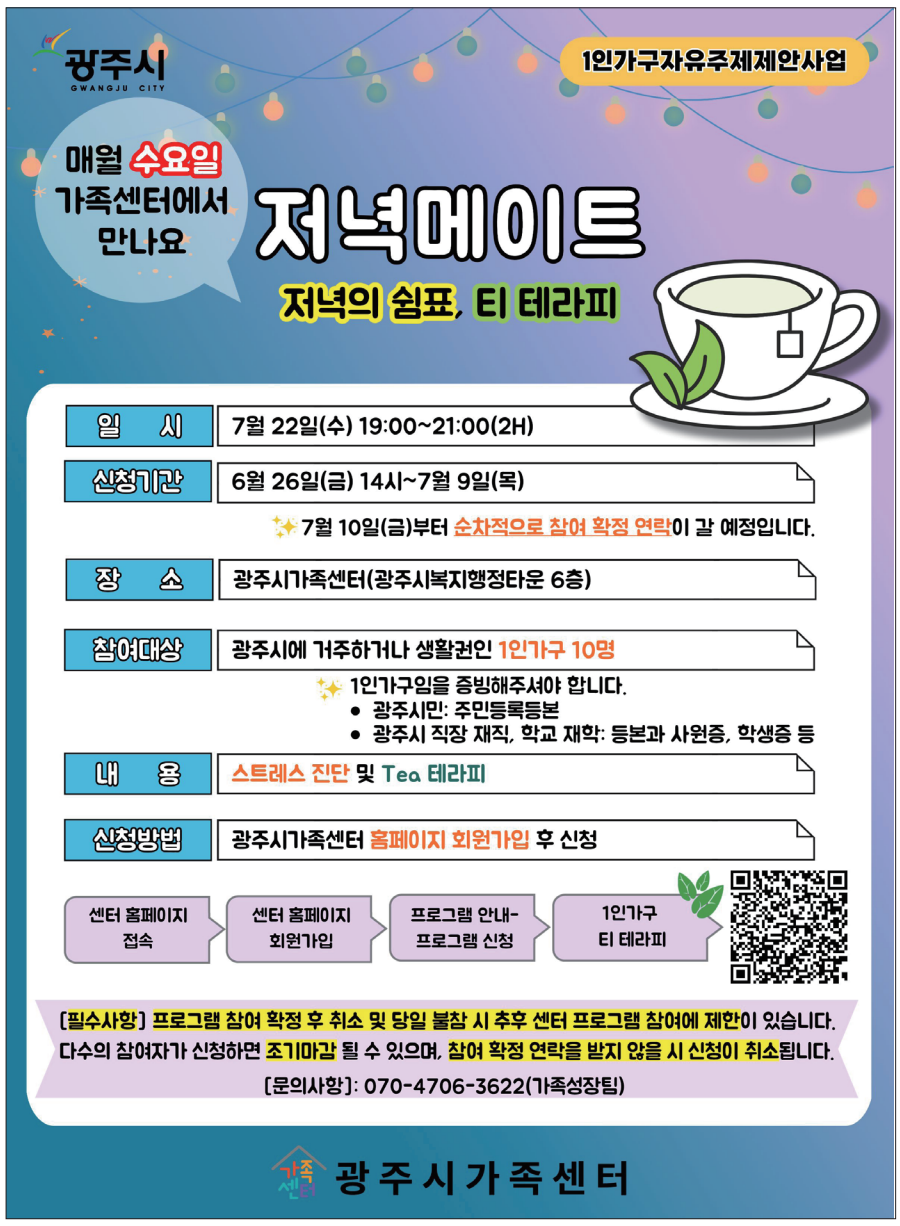
한 참여가족은 "이번 캠프를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아이들과 부모 모두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며 서로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가족들과 함께한 소중한 추억이 일상에서도 긍정적인 힘이 되어 더욱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참여 가족들을 향한 마음을 전했다. 이지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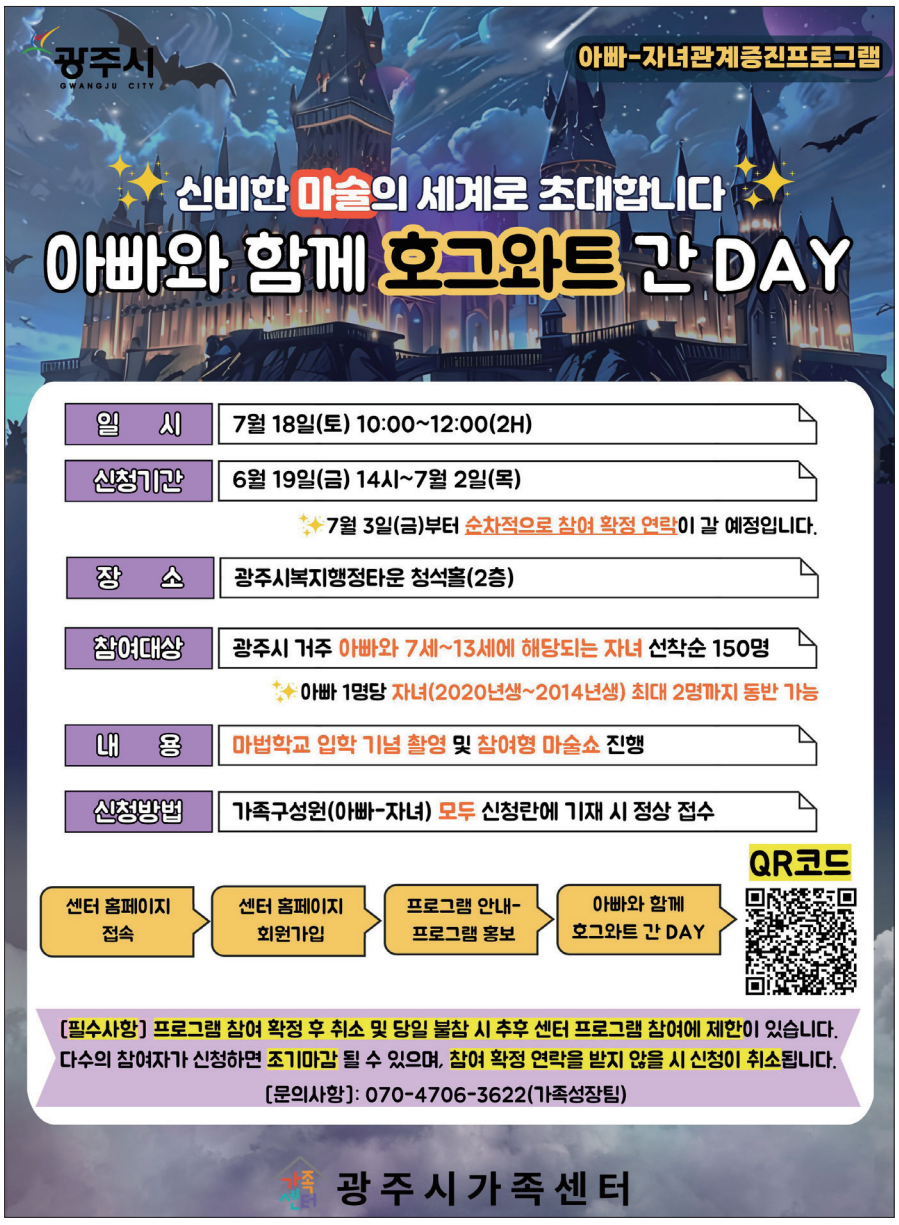
광주보건소,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광주시보건소는 비대면 임산부 건강 소통 창구인 '온-택트(On-tact) 똑똑맘'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내 임산부의 건강한 임신 생활과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안전하게 신체 활동을 실천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은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인 네이버 밴드를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보건소가 매월 네이버 밴드를 통해 임산부 맞춤형 건강 실천 임무를 안내하면 참여자는 일상생활 속에서 임무를 수행한 뒤 인증 사진을 댓글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참여 방법과 자세한 사항은 031-760-2384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Supply of 150 units across 20 cities and counties, expansion of move-in opportunities for non-homeowning households exempt from asset criteria

Gyeonggi Province and the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GH) are recruiting tenants for 150 units of purchased rental housing from June 30 to July 3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non-homeowning residents. This appears to be a good opportunity for multicultural families living in poor housing conditions.

'Purchased rental housing' refers to public rental housing where GH purchases existing homes and supplies them to non-homeowning residents at rental rates lower than market prices.

This supply utilizes purchased rental housing that remained uncontracted after the regular recruitment period, and eligibility requirements have been partially relaxed to provide more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The supply areas include 20 cities and counties within the province, such as Suwon, Goyang, Seongnam, Bucheon, Ansan, Siheung, Uijeongbu, Pyeongtaek, Paju, and Hwaseong, totaling 150 units.

In this recruitment, eligibility criteria have been expanded by waiving asset standards and relaxing income standards. Applicants in the second priority group may apply up to 100% of the previous year's average monthly income per urban worker household, while those in the third priority group may apply up to 150%. In addition, to increase housing utilization, the recruitment scale for reserve applicants per housing unit has been expanded from the existing three times the number of available spots to four times, and supply procedures have been improved by introducing a system of pre-contracting followed by eligibility verification.

Applications for tenant recruitment will be accepted online at the GH Housing Subscription Center (https://apply.gh.or.kr) from June 30 to July 3. Further details can be found in the announcement posted on the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website (https://gh.or.kr, Subscription Information > Sale/Rental). For other inquiries, please contact the Gyeonggi Housing & Urban Development Corporation Purchased Rental Housing Supply Center (South 031-214-8463~4, North 031-852-4208~9, East 031-567-2486~7).

Kim Tae-soo, Head of the Housing Policy Division at Gyeonggi Province, stated, "This recruitment with relaxed eligibility criteria is a measure to provide more non-homeowning resi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adding, "We will continue to strive to expand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ensure its efficient operation to ensure housing stability for our residents."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асширяет лимиты на найм иностранных квалифициров 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и улучшает условия визы E-7-4

С июня иностранные квалифициро в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с визой E-7-4, раб отающие в сельских и рыболовецки х районах, смогут трудоустраиватьс я в большем количестве. Максималь ная доля таких работников на предп риятии увеличится с 30% до 50%.

Кроме того, и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 ки, которые были вынуждены смени ть место работы из-за невыплаты з арплаты, насилия или других неспра ведливых условий труда, смогут со хранить учёт своего предыдущего с тажа при продлении визы или пере ходе на визу E-7-4. <Фото = Papaya Story>

Министерство юстиции Республик и Корея объявило, что с июня 2026 г ода вступят в силу изменения в прог рамм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ая рабоча я сила (E-7-4)»,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ре шение хронической нехватки кадров и создание более стабильных услов ий для работы и проживания иностр а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йм квалифици рован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в сельском хозяйстве

Фермерские и рыболовецкие хозя йства давно жаловались, что даже п 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не могут нанять б ольше опытных иностранных сотруд ников из-за ограничений по числу ин о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Чтобы решить эту проблему, Имм играционная служба Кореи увеличив ает допустимое количество иностра 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визой E-7-4 в сел 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ом, животноводческ ом и рыбном секторах.

Если раньше их количество не мо гло превышать 30% от числа корейс ких работников, то теперь в этих отр аслях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пециальн ое исключение, позволяющее увели чить долю до 50%.

Например, если предприятие нани мает 10 корейских работников, тепе рь оно сможет официально трудоус троить до 5 иностранных квалифици рован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Также для небольших фермерски х хозяйств, где работает не более 4 корейских сотрудников, введено доп олнительное послабление: независи мо от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процентного л имита они смогут нанимать до 2 ино странных работников с визой E-7-4.

При вынужденной смене работы п редыдущий стаж будет засчитывать ся

Для перехода на визу E-7-4 иност ранный работник должен проработа ть на текущем месте работы не мен ее одного года.

Однако ранее возникали ситуации, когда работники были вынуждены с менить работодателя из-за закрыти я предприятия, невыплаты заработн ой платы, насилия или других наруш ений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их предыдущий стаж фактически об нулялся, что создавало трудности п ри смене визового статуса.

Теперь вводится специальное пра вило расчёта трудового стажа. Если смена работы произошла по уважит ельной причине (закрытие компании, банкротство, невыплата зарплаты, ж естокое обращение и другие случаи несправедливого отношения), то пер иод работы у предыдущего работод ателя будет включаться в общий ст аж.

Это правило будет применяться п ри: получении рекомендации работо дателя, необходимой для перехода на визу E-7-4 (требуется не менее о дного года работы); начислении доп олнительных баллов за стаж работ ы более трёх лет на текущем месте при продлении пребыва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обросовестные и ностранные работники не будут тер ять свои права из-за вынужденной с мены работодателя.

Изменения также будут распростр аняться на программу «Региональны е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 (E-7-4R). Ожидается, что это помо жет не т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м работни кам, но и регионам, сталкивающимся с сокращением населения и нехватк ой рабочей силы. 파파야스토리

어린이 도심 물놀이 공간 열려

광주시,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21개소 개장



광주시는 여름철 무더위를 식히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26일부터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은 매년 여름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아온 시설로, 어린이들이 도심 속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올해는 주요 공원을 비롯해 주거지 인근 공원 등 총 21개소에서 운영된다. 운영 기간은 6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이며 운영 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설은 매시간 45분 가동 후 15분 정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광주시는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는 7월 17일부터는 이용 수요가 많은 물놀이 수경시설 9개소에 대해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실시간 개장 현황 안내 시스템을 운영한다.

시민들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내 '분야별 정보-공원-물놀이 수경시설' 메뉴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개장 여부와 임시 휴장 등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원 내 물놀이 수경시설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 위탁해 운영되며 시는 이용 현황과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운영 시간과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철 시민들이 도심 속 물놀이장에서 더위를 식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식중독 예방 위해 최선 다해요!

광주시, 여름철 식중독 예방 캠페인 실시



광주시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발생 위험에 대비해 17일 경안동 행정복지센터 앞에서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시민과 인근 음식점 영업주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캠페인에는 광주시 식품위생과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광주시지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어깨띠를 착용하고 홍보 물품을 배부하며 거리 홍보를 진행했으며 인근 음식점을 방문해 식중독 예방 수칙을 안내했다.

주요 홍보 내용은 올바른 손 씻기, 식품 보관 온도 준수, 조리도구 구분 사용,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조리 기구 세척·소독, 달걀 취급 시 주의 요령 등이다.

광주시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개인위생 관리와 음식물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예방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 수칙 홍보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을 지속해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동아리모임의 활기찬 출발!'

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소통과 어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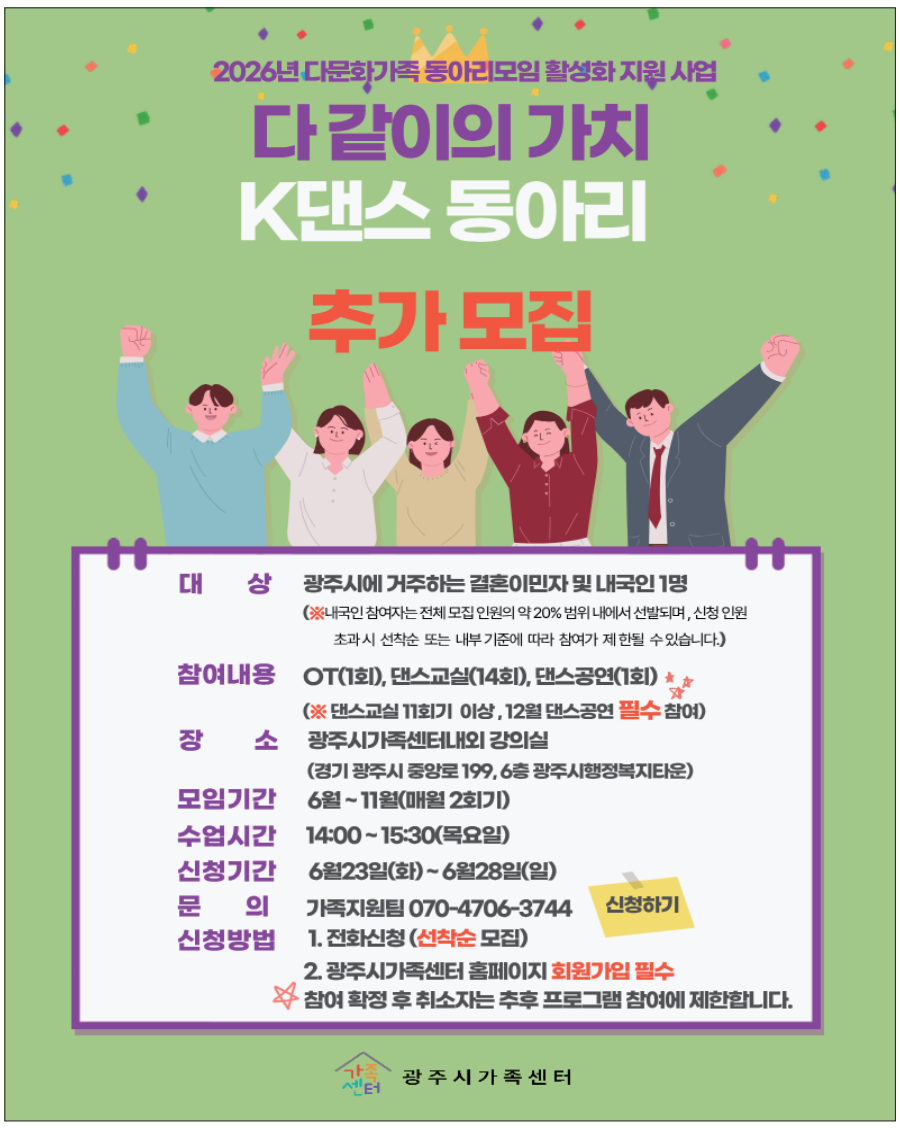
광주시가족센터(센터장 이수희)는 지난 6월 17일과 18일 다문화가족 동아리모임 활성화지원 '다 같이의 가치 K댄스' 오리엔테이션과 댄스교실 1회기를 운영했다.

이날 오리엔테이션에는 베트남·중국·모로코·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 8명이 참여했으며, 동아리 운영 취지와 일정 안내, 참여자 자기소개 및 소통의 시간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18일 진행된 1회기 댄스교실에서는 기초 스트레칭과 간단한 안무를 배우며 참여자들이 자연스럽게 몸을 풀고, 음악에 맞춰 함께 호흡을 맞추었다. 참여자들은 춤을 통해 서로 소통하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첫 수업을 마무리했다.

이수희 센터장은 "이번 동아리모임을 통해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동아리모임은 댄스교실, 사업보고회 공연 참여 등 총 16회기에 걸쳐 운영된다. '다 같이의 가치 K댄스' 동아리는 정기적인 댄스교실 운영과 교류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존감 향상과 사회참여 확대,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도전!
양평군가족센터, '미용자격증 취득반' 합격 성과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는 4월부터 6월까지 결혼이민자 7명을 대상으로 운영한 '미용자격증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수료식을 개최했다.

동행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총 32회기에 걸쳐 진행된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과정은 기본소양교육을 비롯해 미용 이론 및 실습을 체계적으로 구성했으며 국가자격증 취득과 취업 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교육기간 동안 꾸준한 출석과 실습 참여를 통해 전문 기술과 실무 능력을 습득했으며, 교육생 7명 중 3명이 교육과정 중 미용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나머지 참여자들 또한 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꾸준히 시험에 응시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도전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 수료생들은 향후 지역사회 복지기관과 연계한 컷트 미용 봉사활동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격 취득 과정에서 습득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고 실무 경험을 쌓는 동시에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박우영 센터장은 "교육생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를 향해 도전하는 모습이 매우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양평에서의 안정적인 자립과 다양한 사회 참여를 이룰 수 있도록 취업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양평군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공모 선정 사업 운영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공동 주관하는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은 일상생활 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인문학에 담긴 가치와 지혜를 배우고,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인문 프로그램으로 올해 양평군은 양평도서관·용문도서관·양동도서관이 선정되어 총 4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양평도서관은 식물과 음식을 통한 웰니스 인문학 프로그램과 역사·예술·음악·영화를 통한 개인의 삶의 철학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용문도서관은 색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한 정서적 성찰 프로그램을, 양동도서관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일상 속 경험으로 해석하는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사업에 3개 도서관이 동시에 선정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각 도서관의 위치와 강점을 살려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인문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경기도 지방정원 세미원, 연꽃과 풍류가 어우러진 연꽃문화제 개최한다

(재)세미원(대표이사 백난영)은 6월 26일부터 8월 17일까지 세미원에서 「2026년 세미원 연꽃문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꽃문화제는 '풍류, 연꽃에 머물다'를 주제로 아름다운 연꽃 관람과 함께 전시, 공연,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여름 정원문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세미원의 대표 주제정원인 백련지, 홍련지에서는 다채로운 연꽃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인 연꽃 연구가 페리 슬로컴(Perry D. Slocum)이 개발·기증한 연꽃으로 조성한 페리기념 연못을 비롯해 다양한 수생식물을 감상할 수 있다.

연꽃문화제 기간 동안 문화공연도 마련된다. 세미원 고가다리 내에서는 자연을 무대로 한 '양평 물맑은 어울림 음악회'가 진행되며, 매주 토요일에는 양수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통기타·장구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연꽃박물관 특별기획전 '연꽃, 삶의 염원을 수놓다'를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자수와 민속품, 불교 유물 속에 담긴 연꽃의 상징성과 우리 선조들의 삶의 염원을 조명하는 전시로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 운영되는 스탬프 투어도 주목할 만하다.

특별기획전 도슨트 해설을 시작으로 전통놀이 한마당, 주제정원 탐방에 참여하며 세미원 곳곳에 마련된 스탬프를 수집할 수 있다. 축제의 주요 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즐기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관람의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연꽃문화제 관람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장 마감은 오후 7시 30분이며, 휴관일 없이 매일 개방된다. 연꽃 포토존과 탄소중립 캠페인 등 부대행사를 통해 관람객들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백난영 대표이사는 "세미원 연꽃문화제가 여름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콘텐츠와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연꽃이 만개한 정원에서 조선시대 선비의 풍류와 정취를 느끼며 특별한 여름의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언어 역량 강화와 가족 간 의사소통 증진을 위해 3월 5일부터 10월 말까지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총 32명의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 직접 학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중국어교실 A반·B반, 일본어교실, 베트남어교실 등 총 4개 반이 운영되고 있다. 참여 아동들은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 체험 활동을 통해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이중언어 능력을 키우고 있다.

또한 센터는 이중언어 직접 학습에 참여하는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은 부모의 이중언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와 자녀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유대감 형성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연계하여 연초에 신청한 다누리배움터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프로그램이 지난 6월 11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하남시가족센터 3층 설레임실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교육에는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 등 총 30명이 참여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파견한 이이즈카 사야카 강사로부터 '이야기 속 주먹밥, 마음을 나누는 문화여행-일본편'을 주제로 수업을 들었다.

이 프로그램은 일본의 전래동화 『데굴데굴 주먹밥』을 한국어와 일본어로 함께 듣고, 이야기 속에 담긴 일본 문화를 이해한 후 가족별로 세상에 하나뿐인 '오리지널 주먹밥 비누'를 만들어 서로에게 선물하는 체험형 문화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부모와 자녀가 이중언어로 소통하며 일본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가족이 함께 활동에 참여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다.

문병용 센터장은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은 단순한 문화 체험을 넘어 부모와 자녀가 이중언어로 소통하며 서로의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하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이중언어 교육과 다문화 이해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성 기자

하남시, 학교 집단감염 재발방지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해

하남시보건소는 최근 관내 일부 학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의심환자가 집단 발생함에 따라 학교 현장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해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주로 구토와 설사, 복통 등 장관감염 증상을 동반한다. 특히 여름철은 높은 기온과 습도, 장마나 집중호우 등의 영향으로 병원체가 증식하기 쉬워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하남시보건소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집단발생이 확인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실시해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등과 면담을 진행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증상 학생과 조리종사자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이다. 증상이 있는 경우 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등교와 출근을 중지하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식재료별 조리도구 구분 사용과 조리 중 장갑 교체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자가 발생한 장소에 대한 신속한 소독과 위생관리 강화를 당부했다. 또한 유증상자 발생 시 신속한 모니터링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가정과 지역사회로의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 가정통신문과 예방 홍보자료를 활용해 학생과 학부모의 감염병 예방 인식 제고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하남시가족센터, 호국보훈의 달 맞아 건강가정캠페인 '나라사랑캠페인' 운영



하남시가족센터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6월 11일 하남시보훈회관에서 건강가정캠페인 「나라사랑캠페인」을 운영했다.

이 캠페인은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들이 국가유공자와 함께하는 체험을 통해 보훈의 가치를 배우고,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키워 올바른 역사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도록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신장초등학교 학생회 학생 13명과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 10명 등 총 23명이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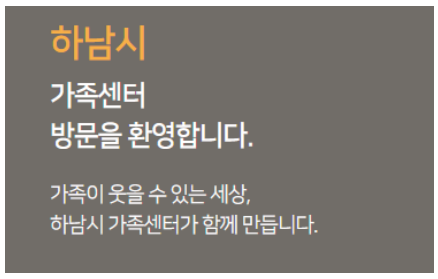
참가 학생들은 하남시보훈회관 전시관을 관람하며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와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후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회원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라를 위한 헌신과 보훈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상호존중의 시간을 마련하여 학생들은 국가유공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꽃다발을 전달하고, 국가유공자들은 학생들에게 무궁화 배지를 수여하며 세대 간 존중과 감사의 의미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역사교육을 넘어 미래세대와 국가유공자가 직접 교류하며 보훈의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기획된 세대통합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여 학생들은 국가유공자의 삶과 헌신을 보다 가까이에서 이해하며 감사와 존중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었고, 국가유공자 또한 미래세대와 함께하며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의미를 나누었다.

활동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국가유공자와의 만남 및 보훈회관 전시관 관람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이번 캠페인이 국가유공자와 미래세대가 직접 소통하며 보훈의 가치를 공유하는 세대공감형 프로그램으로써 지역사회 내 보훈문화 확산과 국가유공자 예우문화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송하성 기자

결혼이민자의 ITQ PPT 자격증 도전은 성공!

하남시가족센터, 2026년 다이룸(多이룸)취업 프로젝트 '클릭 ITQ!'



하남시가족센터(센터장 문병용)는 지난 5월 31일 서울시 강동구 소재 대신기술능력개발원에서 하남시 결혼이민자 7명의 참여로 '2026년 ITQ PPT 특별시험'에 응시했다.

이번 과정은 결혼이민자들에게 PPT 교육과 시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교육에 참여한 결혼이민자들은 타자 연습부터 PPT 작업, 캔바(Canva) 활용법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수했으며, 최종적으로 PPT 자격증까지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는 단순한 배움을 넘어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립의 기반을 다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자격증 시험에서는 A등급 4명, B등급 2명, C등급 1명으로 응시자 과반수가 A등급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필리핀 출신의 결혼이민자는 지난해 B등급을 취득하였고, 올해 A등급을 목표로 재수강한 끝에 원하는 목표를 달성해 남다른 열정을 보여주었다. 참가자들은 낯선 시험장에서 제한 시간 안에 치러진 시험이라 긴장감이 컸지만, 전원이 시간 내에 차질 없이 답안을 제출하며 그동안 쌓은 실력을 발휘했다. 또한 시험 직전 서로 응원하며 힘이 되어준 덕분에 함께 공부한 결혼이민자 전원이 끝까지 시험을 마칠 수 있었다.

교육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4.86점의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참여자들은 "강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질문에도 친절히 답변해서 실력이 늘었다", "매시간 연습하니 타자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친구들과 함께 공부해서 즐거웠고 내년 컴퓨터 수업에도 다시 참여하고 싶다" 등의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평가는 실제 지표 상승으로도 증명됐다. 자기효능감 사전·사후 검사 결과 참여자별로 최소 2점에서 최대 9점까지 점수가 상승했으며, 취업준비행동 검사 역시 최소 2점에서 최대 10점까지 점수가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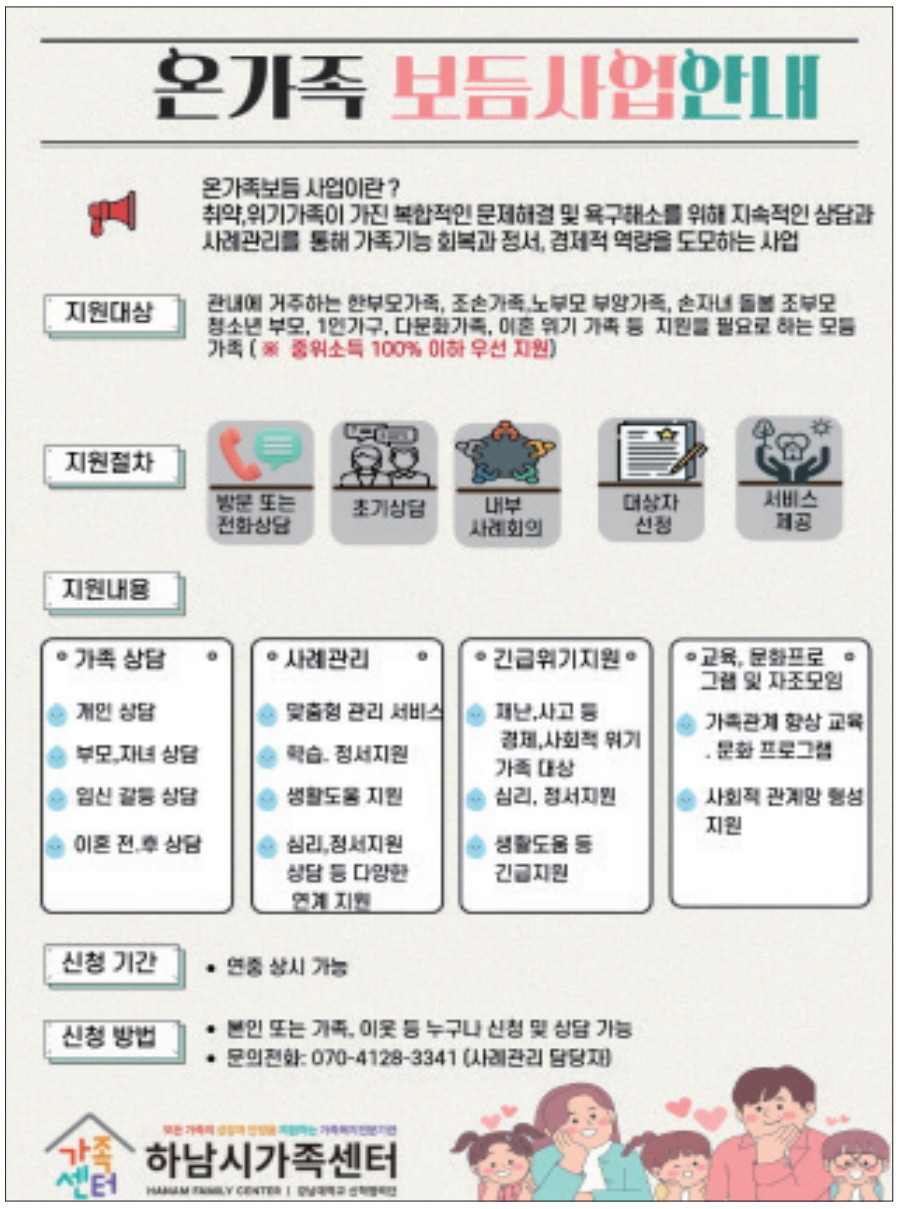
특히 일부 참여자는 교육 수료 후 가상비서 직무에 지원하거나 토픽(TOPIK) 시험을 준비하고, 채용 공고를 더 자주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취업 활동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결혼이민자들이 취업 역량을 키워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에 다진 실력은 후속 엑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070-4106-8053 송하성 기자

광역버스 3000번 출퇴근 시간대 추가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미사강변도시와 판교테크노밸리를 오가는 광역버스 3000번 노선의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를 각각 1회씩, 하루 총 2회 추가 운행한다고 밝혔다.

정규 노선 증차는 차량 확보와 운송 여건 등으로 즉각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전세버스를 활용해 혼잡도를 완화하고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추가 운행은 ▲출근 시간대(오전 7시~8시) 1회, ▲퇴근 시간대(오후 6시~7시) 1회 실시된다. 출근 시간대 전세버스는 기존 3000번 버스와 달리 미사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발한 뒤 기존 노선과 동일한 정류장을 경유해 판교 방면으로 운행한다. 이는 관내 마지막 정류소인 황산사거리에서 반복되던 만차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6월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한국어교육)의 국내적응지원 교육의 일환으로 LG유플러스와 연계해 '다문화가정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및 스마트폰 AI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어교육 수강생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적응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LG유플러스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임직원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교육을 제공했다.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의 주요 유형과 실제 피해 사례, 예방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AI 서비스인 제미나이를 활용한 번역, 정보 검색, 이미지 생성 기능 등을 직접 체험하는 실습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LG유플러스 임직원과 한국어교육 수강생이 1:2로 매칭되어 교육 효과를 높였다. 참여자들은 임직원들과 함께 스마트폰 기능을 실습하고 궁금한 사항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자연스러운 소통 속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날 교육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족은 "보이스피싱 대처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고, AI를 활용한 번역 기능이 한국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다문화가족은 "LG유플러스 임직원 강사님이 옆에 앉아 모르는 내용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좋았다."며 "교육이 쉽고 재미있게 진행되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었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었다.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활용 앱과 AI 기능을 배울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지역사회 기업과 복지기관이 협력하여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주민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지원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참여자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을 통해 수준별 한국어교육과 국내적응지원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송하성 기자

광명시, 고장 난 우산을 고쳐 '녹색 나눔' 실천...무상수리도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버려질 뻔한 우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시민과 함께 나누는 생활 속 자원순환을 실천한다. 광명시는 우산수리센터에서 수리·정비한 우산을 '순환나눔우산'으로 활용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와 일부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순환나눔우산'은 고장 나거나 사용이 어려워진 우산을 수리해 다시 쓰는 자원순환 사업이다.

버려지는 우산을 줄이고 자원의 가치를 되살리는 동시에, 갑작스러운 비나 강한 햇볕으로 우산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광명시는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로비에 순환나눔우산 비치를 완료했으며, 이달 중 광명7동, 철산2동, 철산3동, 하안1동,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등 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비치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준비된 우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우천이나 폭염 등으로 갑작스럽게 우산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반납 의무 없이 필요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사용 중 우산이 다시 파손되거나 고장 나면 버리지 않고 광명시 우산수리센터로 가져가면 된다. 시는 재수리를 거쳐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해 수리, 나눔, 재사용으로 이어지는 자원순환 구조를 확산할 방침이다.

한편, 광명시 우산수리센터는 시민들이 사용하다 고장 난 우산을 1인당 2개까지 무상으로 수리하고 있다. 또한 기부받은 우산을 수리·정비해 순환나눔우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광명시, 26개 시민모임과 마을공동체 키운다...돌봄·환경·다문화 분야 지역 문제 해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주민이 직접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키우는'동상일몽' 사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올해 돌봄, 탄소중립, 문화·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26개 시민모임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동상일몽'은 '같이 행동하고 같은 꿈을 꾸는 우리'라는 뜻으로, 주민이 스스로 지역사회 변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공동체 성장 단계와 목적에 따라 ▲씨앗 ▲성장 ▲지속 ▲문제해결형으로 운영한다. 신규 공동체의 활동 기반 마련부터 자립과 확산, 지역 현안 해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이 이뤄진다.

씨앗·성장 단계에서는 인지놀이, 독서문화 교육, 저탄소 식생활 실천 등 주민 관계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지속 단계에서는 학교 예비식 나눔, 농아인·1인 가구 정서 지원, 다문화가정 텃밭 활동 등 공동체 활동을 확대한다.

특히 문제해결형 분야에서는 아동 돌봄, 고립가구 정서 지원, 다문화·한부모가정 지원, 음식물 쓰레기 감축 등 주민이 체감하는 지역 문제 해결에 나설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번 사업이 아동·청소년, 시니어,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체 기반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지역의 변화는 주민 간 연결과 참여에서 시작된다"며 "시민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실천이 지역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마을자치센터(02-2680-55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Ministry of Justice Improves E-7-4 Employment Visa System, Including Expansion of Employment Limits for Skilled Foreign Workers in Rural Areas

Starting this coming June, the permitted employment quota for skilled foreign workers (E-7-4) in rural areas will be significantly expanded from the current 30% to up to 50%. In addition, foreign workers who have been forced to change jobs due to unfair treatment, such as unpaid wages or assault, will be able to change or extend their visas with their previous work experience fully recognized.

The Ministry of Justice (Minister Jung Sung-ho) has prepared an improvement plan for the "Skilled Workforce (E-7-4)" system, centered on these measures, to resolve the chronic labor shortage in industrial sites and enable foreign workers to stay and work stably, and will implement it in June 2026.

Additional hiring of skilled foreign workers in rural areas

There have been many voices from the field stating that rural and fishing communities, facing labor shortages, have been struggling to hire more skilled foreign workers due to employment quotas. To address these difficulties, the Immigration Service is increasing the permitted employment limit for skilled foreign workers (E-7-4)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sectors.

Previously, employers were only allowed to hire foreign skilled workers (E-7-4) up to 30% of their national workforce; however, going forward, the "Special Provisions on Permitted Employment Quotas" will be applied in the agriculture, livestock, and fisheries sectors to allow employment up to a maximum of 50%. This means that if a business employs 10 nationals, it is now permitted to hire up to 5 foreign workers.

In addition, small-scale agricultural, livestock, and fisheries businesses with four or fewer national employees have been improved to allow them to hire up to two foreign skilled workers (E-7-4), regardless of the permitted employment ratio for foreign workers.

Previous work experience is recognized for unavoidable job changes

Foreign workers must have worked at their current workplace for at least one year to change to a skilled worker (E-7-4) employment visa;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y faced difficulties changing their employment visa because their 'previous work' history disappeared when they were forced to change jobs due to the business closure, assault, or non-payment of wages.

To ensure that diligent foreign workers do not face disadvantages when changing to a skilled worker (E-7-4) employment visa or extending their period of stay, a new "Special Provision for Calculating Period of Service" is being established. This provision recognizes the period of "employment at the previous workplace" as part of the period of service in cases where a worker changes jobs due to unavoidable reasons (such as temporary or permanent closure, or unfair treatment).

This special provision applies to the requirements of "recommendation from a company where the worker has been employed for at least one year" and "additional points for at least three years of service at the current workplace," which are necessary for changing to a skilled worker (E-7-4) employment visa or extending the period of stay. Accordingly, this ensures that foreign workers do not face disadvantages when changing or extending their employment visas.

The proposed improvements to the employment visa system will be applied equally to the "Regionally Specialized Skilled Workforce (E-7-4R)" system, and are expected to provide substantial assistance to local economies and industrial sites struggling with population decline.

Song Hasung Reporter

京畿道内31个市郡公共图书馆315处，运营丰富多彩的活动和项目 도서관 이용안내

京畿道31个市郡公共图书馆为迎接暑假和休假季，将举行丰富多彩的活动和项目，让道民们避暑。 外国居民今年夏天也和子女一起到图书馆避暑吧。

今年夏天，公共图书馆将不再只是阅读空间，而是有望成为所有居民都能享受文化、消暑纳凉的&综合文化避暑胜地&。

京畿道图书馆将在7~8月的暑假期间运营"深夜图书馆"，进行通宵读书夏令营。 另外，还计划准备以数码绿洲为主题的"媒体艺术休息区(LED月·ASMR音响)"，让道民在凉爽舒适的室内空间中休息的同时，也能体验丰富的文化活动。

道内公共图书馆将举行爵士乐人文学演出、朗读音乐会、原画展示、儿童读书教室、创客空间体验、家庭音乐会、木偶剧等多种文化项目。

平泽市芝山绿色图书馆将于7月24日利用夜间时间段，在图书馆附近的树林里举办与家人一起的生态体验项目"沿着月光走向树林"， 参加者们可以在仲夏之夜观察森林生态，享受与众不同的读书文化体验。

水原市西水原图书馆从8月3日到6日以小学1~2年级学生为对象，举办与图画书作家一起阅读、制作、动手的《夏天，一起玩吧！绘本艺术乐园》活动。

安城市宝盖图书馆将在末伏8月14日午夜之前举办"夜间开放夜读(讀)鬼怪"活动，九里市为公共图书馆的游客提供遮阳伞借用服务，预防酷暑引起的温热疾病。

生活圈附近的小图书馆也将在应对高温方面发挥重要作用。京畿道通过"小型图书馆酷暑·严寒避难所运营项目"，向道内340个小图书馆支援冷暖气费，并运营任何人都可以使用的开放型休息区。支援的预算将用于电费等冷气费，道民们可以在家附近的小型图书馆里，一边纳凉休息，一边阅读图书，度过舒适的夏天。

京畿道图书馆馆长尹明熙(音)表示:"在气候变化导致酷暑日常化的情况下，图书馆是任何道民都可以安全舒适停留的空间"，"希望通过融合阅读与文化的丰富活动，让道民们度过凉爽充实的夏天"。

另外，夏季阅读文化活动的日程和参与方法等详细事项可以在京畿道图书馆主页(library.kr)和各市郡公共图书馆主页上确认。

〈한글 기사 1면,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QR코드 스캔 후 파파야스토리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국기를 선택해 언어를 변경하세요.

성평등가족부

온가족 보듬사업



온가족보듬

온가족보듬사업은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의 복합적인 문제해결과 가족기능 회복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취약 · 긴급 위기 가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

구분 / 서비스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학습정서지원	미취학 아동 초중 재학생 자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1:1 자기주도 학습지도 정서지도 등	보듬매니저 가정방문 주 1회, 2시간 서비스 제공
생활도움지원	만 18세 미만 (손)자녀 만 65세 이상 노부모와 생계,주거를 함께하는 가족	긴급 일시돌봄, 활동지원 등 전반적인 생활도움 지원	
긴급위기지원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에 직면한 가족	심리정서 지도 긴급돌봄지원 전문상담 연계 등	위기 상황에 따른 맞춤지원
가족상담	개인, 부부, 부부-자녀 등	다양한 갈등 상황을 경험중인 가족에게 건강한 관계 개선 및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원	상담전문인력 상담서비스 제공
교육문화프로그램	가족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쌓는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		
자조모임	비슷한 경험의 구성원과 정보 나누며 정서적 지지를 주고받는 모임		

☎ 상담문의: 02-2686-0435 온가족보듬사업 담당자

가족의 일상 회복, 여기서 시작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온가족 보듬사업

2026년 광명시가족센터

면접교섭 서비스

전문상담사가 자녀와의 만남을 도와드려요
비양육부모와 자녀의 건강한 관계증진을 위한 면접교섭서비스 지원

면접교섭 서비스란?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등으로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부모와 자녀**가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지원**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프로그램 내용	• 면접교섭 이행을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 면접교섭 계획 및 진행방법에 대한 중재 • 모니터링 서비스 등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서비스 지원
신청 대상	이혼 과정 중이거나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둔 **양육·비양육 부모**
신청 방법	전화 접수(02-6265-1366) 또는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안내사항
• 면접교섭서비스 신청서(센터양식) • 피신청인 동의서(센터양식) • 부-모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자녀기준) • 면접교섭 합의서 또는 판결문(있는경우)	• 양육·비양육 부모의 동의 모두 필요 • 가정당 8회기 상담진행 (세부일정은 신청 시 조율예정) • 문의: 02-6265-1366 (홍주미 사회복지사)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국토교통부 광명시 경기교통공사 HYUNDAI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부르면 오는 버스,
수요응답형버스(DRT)
일직동 개통!

2026년 7월 6일부터 일직동 지역에 부르면 오는 수요응답형버스(DRT)이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버스와 동일한 금액으로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운행기간 [정식운행] 2026년 7월 6일
[시범운행] 2026년 6월 22일 ~ 7월 5일 (*시범기간중은 무상운행)
운행지역 - 일직동 - 학온동 - 광명사거리역(7호선)
- 일직동 - 소하2동 - 철산역(7호선) (*운행지역 내 기존 버스정류장 중 DRT 지정 정류장)
운행시간 06:00 ~ 23:30 (호출마감시각 23:00)
이용요금 1650원
경기도 버스 요금과 동일, 환승할인 (*현금이용 불가)
운 영 경기교통공사, 화영운수, 진성모빌리티
호출방식 '똑타'앱, 전화호출(1688-0181)

※ 호출취소 및 미탑승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 차량 호출 5분 초과부터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 도착 직전까지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300원이 부과됩니다.
- 차량이 승객의 출발지에서 떠난 직후 호출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수수료 500원이 부과됩니다.
  - 수수료 면제 기준
    - 차량 호출 5분 이내 취소 시 (일 2회 제한, 3회부터 즉시 취소 수수료 부과)
    - 운송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 미탑승 시 운임요금 100%가 부과됩니다.



*해당 컨텐츠는 광명시와 경기교통공사의 자료를 활용 및 참고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온가족 보듬사업

성평등가족부



광명시가족센터와 함께하는
2026년도 온가족보듬

가족상담

개인 / 부부 / 가족상담

내 마음을 털어놓고 싶을 때 | 서로를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을 때 | 가족 내 어려움을 해결하고 싶을 때

대 상
상담을 원하는 누구나
(광명시 거주자 우선)

내 용
개인, 부부, 가족 상담 지원

운영기간
[주간] 월~금 9:00~20:00
[주말] 토요일 9:00~18:00

비 용
총 10회기, 주 1회 진행
- 개인상담 | 회당 50분, 5천원 (총 5만원)
- 부부&가족상담 | 회당 90분, 1만원 (총 10만원)
*기초수급/차상위 증빙시 무료 진행
*심리검사 진행 시 별도 비용 발생 (필요시)

장 소
광명시청 제 1별관 내 광명시가족센터

신청 및 문의 ☎ 02-6265-1366 / 광명시가족센터 홈페이지

가족센터 광명시가족센터



"영화 관람하며 가족 소통 키워요"

광명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영화 관람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6월 20일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글로벌 한마음〉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영화 '토이스토리5'를 관람했다.

가족 소통 프로그램의 첫 번째 활동으로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가족이 함께 여가문화를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문화활동을 경험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특히 아동들이 주요 참여 대상으로 함께해 가족 단위의 문화체험 기회를 더욱 의미 있게 했다.

영화 관람 후에는 평소와 같이 태권도교실 수업에 참여했다. 가족들은 문화체험과 체육활동을 함께 경험하며 가족 간 친밀감을 높일 수 있었다.

이날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가족은 "가족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며 "영화가 재미있어 아이도 좋아했고, 오랜만에 여가를 즐길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남은정 센터장은 "가족이 함께하는 문화활동은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다양한 문화 경험을 누리고 건강한 가족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다문화가족 태권도교실 〈글로벌 한마음〉은 202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으로, 12가정이 매주 토요일 정기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 가족들은 태권도 수련을 통해 체력 증진과 자신감 향상을 경험하며, 지역사회 행사 및 공연에도 참여해 태권도 시범을 선보이는 등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

광명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한국생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02-6265-1366

이지은 기자

광명도서관, 여름방학 '메이커스페이스 시민 창작 교육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 광명도서관은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아 시민 디지털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창조 혁신 문화(메이커 문화)를 확산하고자 '메이커스페이스 여름방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민을 위한 열린 창작 공간인 광명도서관 메이커스페이스는 상시 이용자를 위한 기초 장비 교육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기본으로 운영 중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에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과 첨단 디지털 장비를 결합한 대상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15개 강좌를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령과 목적에 맞게 세분화해 시민 참여 폭을 넓힌 것이 특징이다.

▲청년 대상 '창업 도약을 위한 디지털 제작' ▲성인 대상 'AI와 디지털 장비 활용 교육' ▲방학을 맞은 청소년 및 가족이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체험형 프로그램인 'AI 활용 동화책 및 굿즈 제작' 등이 대표적이다.

참여 신청은 6월 29일 오전 10시부터 광명시 도서관 누리집(gmlib.gm.go.kr)에서 온라인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프로그램별 상세 일정과 참여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은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시민 누구나 인공지능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인 디지털 제조 장비를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직접 만들고 싶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광명도서관 02-2680-5417 이지은 기자

광명시, 디지털 시대 맞춤형 사무 전문인력 양성...직업교육훈련 과정 훈련생 모집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디지털 전환 시대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사무 전문인력 양성에 나선다.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회계·세무 실무 능력과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갖춘 '인공지능(AI)활용 멀티사무원' 직업교육훈련 과정 훈련생 20명을 오는 7월 7일까지 모집한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으로 문서 작성, 자료 조사, 콘텐츠 제작 등 사무 업무 전반에 인공지능(AI) 활용이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회계·총무 역량과 함께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수요를 반영해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교육은 7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총 50일(200시간) 동안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재무회계 및 세무 기초, 부가가치세·소득세 실무, 회계프로그램 실습, FAT(회계실무) 1급 자격 취득 대비 등이다.

이와 함께 한글·엑셀 등 사무자동화(OA) 실무, 챗지피티(ChatGPT)·제미나이(Gemini)·코파일럿(Copilo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문서 및 콘텐츠 제작, 마케팅 실무를 교육한다. 입사지원서 작성, 면접 코칭, 조직 커뮤니케이션 등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병행한다. 교육비, 교재비, 자격검정료는 전액 지원한다. 참여촉진수당(최대 35만 원)과 교통비(최대 10만 원)를 포함해 전 과정 참여 시 최대 45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대상이며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20명을 선발한다. 면접은 7월 9일, 합격자 발표는 7월 13일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제 사무직도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업무 수행 역량이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이번 과정으로 여성들이 변화하는 채용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청은 광명시여성비전센터 1층 취업상담실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여성새로일하기센터(02-2680-28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지은 기자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오대일)는 지난 6월 18일 오후, 센터 가온실에서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간병사양성과정' 수료식을 개최했다.

경기도와 이천시가 주최하고, 이천시가족센터가 주관한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케어인재협회의 협력으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취업 기반 마련과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됐다.

과정은 5월 19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한 달간 총 10회기에 걸쳐 진행됐으며, 매회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됐다. 총 12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전원 수료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동시에 전원이 '노인심리상담 2급 자격'을 취득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교육생들에게 수료증이 수여됐으며, 그간의 노력과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오대일 센터장은 "교육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높은 열정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간병사라는 전문 분야에서 자신감을 가지고 활발히 활동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향후 한국관광대학교와 협력한 '제빵마스터과정(6월 26일~8월 7일)'과 웰파운데이션과 협력한 '한국어 교육강사양성과정(8월~9월, 주중·주말반)'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031-631-2267 송하성 기자

이천시가족센터, 중장년 대상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개최해

이천시가족센터(오대일 센터장)는 중장년 대상 빈둥지증후군 예방 프로그램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참여자들의 작품전시회를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개최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프로그램의 성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참여자들이 직접 만든 도예작품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마련되었다.

전시된 작품은 나뭇잎 접시, 다관, 샐러드볼 등 참여자들이 도예체험을 통해 완성한 작품들로, 가족을 위해 헌신하던 시간을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집중하며 힐링과 자기돌봄을 경험한 과정이 담겨 있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자녀의 독립 이후 찾아올 수 있는 빈둥지증후군 예방을 위해 사회활동과 교육을 병행한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은 또래와의 소통과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삶의 활력을 얻었다.

오대일 센터장은 "이번 전시회가 중장년층이 자신을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강한 사회참여와 자기돌봄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물놀이로 하나되는 우리 가족'...다문화·비다문화 통합 가족프로그램 워터플레이!



이천시가족센터는 지난 6월 13일, 다문화가족 및 비다문화가족을 아우르는 통합 가족캠프 「워터플레이!」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캠프는 이천시가족센터의 〈부모역할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협력해 기획·운영한 것으로, 두 사업이 손을 맞잡고 진행한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초여름 물놀이를 주제로 기획된 이 캠프에는 언어발달지원사업 대상 아동 및 부모역할지원사업 참여 가족 등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함께 참여했다. 물놀이라는 공통된 활동 속에서 참가자들은 언어·문화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자연스럽게 교류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건강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도 이바지했다.

특히, 참가자들은 수영장 자유 수영, 워터 슬라이드, 버블 체험 등 다양한 물놀이 프로그램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부모역할지원사업 차원에서는 다양한 가족과 함께하는 캠프 경험이 부모들에게 양육에 대한 공감과 연대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가 학부모들은 "비슷한 고민을 가진 가족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위로가 됐다", "아이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모습을 보니 힘이 났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언어발달지원사업 측면에서는 물놀이 체험이라는 풍부한 감각 환경이 아동의 자발적 발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관찰됐다. 아동들은 활동 중 처음 만나는 또래 가족과도 먼저 말을 거는 등 의사소통 개시 행동을 보여 치료실 밖 상황으로의 언어 일반화 장면이 확인됐다.

오대일 센터장은 "이번 워터플레이! 캠프는 사업 간 칸막이를 허물고 다문화가족과 비다문화가족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웃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가족 유형을 가리지 않고 지역사회 모든 가족이 함께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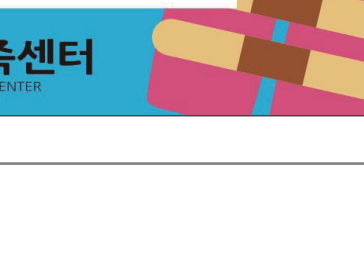
이천시가족센터는 이번 통합 캠프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내 다양한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형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정 방문교육

이천시가족센터에서는 전문지도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맞춤형서비스(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모집기간** | 1월~12월 연중수시모집
2. **모집대상** | 결혼이민자 및 만3세~만12세 이하 다문화자녀 (중도입국자녀 포함)
3. **프로그램** | 한국어교육, 부모교육, 자녀생활서비스
4. **수업시간** | 대상자와 지도사가 협의 후 주중 주 2회, 2시간(쉬는시간20분포함)수업진행
5. **문의전화** | 031-637-5525

※ 방문교육서비스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과(맞춤형복지팀) 신청
※ 방문교육은 한 가정에 하나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하나의 서비스가 끝난 후 다른 서비스 제공 가능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2026결혼이민자 취업기초소양

운전면허필기 시험준비반



▶ 교육대상 : 이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15명

▶ **교육일정 (8/31~9/9)** : 교육,신체검사, 시험, 학원연계 등

일시	8/31(월) 10시~12시	8/31(월) 13시30분	9/2(수) 10시~12시	9/4(금) 10시~12시	9/7(월) 10시~12시	9/9(수) 10시~12시
내용	이론수업①	신체검사	이론수업②	이론수업③	모의고사	의무교육및 필기시험
장소	센터313호 (가온실)	금강병원	센터313호 (가온실)	센터313호 (가온실)	디지털교육장	대기: 디지털교육장 시험: 가온실
준비물	신분증 & 사진2장					신분증& 응시비 1만원

※ 필기시험 처음 응시할 경우에는 응시비 1회 무료지원(재시험은 해당없음)

▶ 교육접수 : 7/27(월), 오전9시~선착순 마감

▶ 접수방법 : 「이천시가족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후 신청

▶ 기타문의 : 사업3팀 ☎031-631-2267

이천시 Icheon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2026년 7월~9월
외국인주민 한국어교실 참여모집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

한국어 초급1과정

2026.07.11 ~ 09.12
매주 토/일 오후4시~7시

이천시거주 비자코드가 있는 외국인주민 15명

수업장소 :이천외국인센터_ 이천순복음교회 3층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가족센터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2026 결혼이민자역량강화-취업준비교육

한국어교육강사 양성과정



교육내용 : 이중언어 한국어 교육 강사 양성과정
주중반(A), 주말야간반(B)

교육대상 : 결혼이민자
- 한국7년이상 거주자 중 한국어소통 가능자
- TOPIK 4급이상 수준 선호(필수는 아님)
- 교육참여에 의지가 강하고 열정이 있는 사람

교육신청 : 6/19(금) 9시~ 가족센터 홈페이지 접수

교육일정 : 총70H (정규수업50H+자율학습인정 20H)
* 교육강사 김지선(WELL FOUNDATION)

A반 신청

B반 신청

구분	추진일정	교육구성	교육장소
A반 (주중반)	8/10~9/16(총15회) 월,수,금 13시~17시	대면강의+실시간ZOOM강의 +자율학습인정제	가족센터 313호
B반 (주말반)	8/9~9/20(총6회) 매주 일요일 19시~24시	실시간ZOOM강의+강의녹화본 대체강의+자율학습인정제	온라인

기타사항
: 센터 파견강사 / 보조강사 /교육봉사 활동
: 교육기간 중 콘텐츠 및 출간가능, 지적재산권 보장
: AI언어플랫폼 WELLMELT.COM우선등록
: 1인 전문분야 콘텐츠 전문가로 수익화 및 창업등록
: 1기교육생 출간100%지원 (국내 도서출판 및 아마존 판매)

이천시 Icheon 이천시가족센터 ICHEONSIFAMILY CENTER WELL FOUNDATION



평택시가족센터, 다양한 가족 대상 가족페스티벌 가족명랑운동회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6월 20일 관내 다양한 가족 40가정, 1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족명랑운동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족문화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운동회 시작 전 가족사진 촬영을 비롯해 캡슐토이, 결혼이민자의 재능기부로 운영된 페이스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되어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풍선아트 동아리의 재능기부로 제작된 풍선아치가 행사장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본격적인 운동회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6종목의 경기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팀을 이루어 다양한 경기에 참여하며 협동심을 발휘하고 서로를 응원했으며, 세대 간 소통과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행운권 추첨과 참여 가족 대상 상품 증정도 진행되어 행사에 즐거움을 더했다. 참여 가족들은 신체활동과 체험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특별한 추억을 만들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한 가족은 "아이와 함께 마음껏 뛰어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좋았다"며 "다양한 체험활동과 경기가 준비되어 있어 온 가족이 만족할 수 있는 행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가족명랑운동회가 가족 간 소통을 증진하고 다양한 가족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족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운영하며 가족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놀이터 '농장체험'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13일 꿈꾸는키즈팜 평택점에서 22~24년생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20가족을 대상으로 6월 가족놀이터 '방울토마토 수확 및 물놀이'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에게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여가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여 가족들은 방울토마토 수확체험과 물놀이, 놀이시설 이용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직접 방울토마토를 수확하며 농작물이 자라는 과정을 배우고 자연을 가까이에서 경험했으며, 부모들은 자녀와 함께 체험에 참여하며 특별한 추억을 쌓았다.

특히 분무 수경재배 방식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의 생육 환경을 관찰하며 새로운 농업기술을 접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 운동회 장식 위한 풍선아치 제작 재능기부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19일 가족명랑운동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풍선아트 동아리 '에어팝'과 지역사회 공방의 재능기부를 연계한 풍선아치 제작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은 6월 20일 개최된 가족명랑운동회 행사장 장식을 위한 사전 준비로 마련되었으며, 참여자들은 운동회의 활기차고 즐거운 분위기를 표현하기 위해 다양한 색상의 풍선을 활용하여 풍선아치를 제작했다.

특히 이번 풍선아치 제작은 풍선아트 동아리 회원들과 지역사회 공방 관계자들이 재능기부 형태로 함께 참여하여 더욱 의미를 더했다. 참여자들은 풍선아트 기술을 활용해 행사장 환경을 조성하며 지역사회 나눔 활동에 동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활동에 참여한 동아리 회원은 "평소 배운 풍선아트 기술을 지역사회를 위해 활용할 수 있어 보람을 느꼈다"며 "많은 가족들이 풍선아치를 보며 즐거워할 모습을 생각하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 다른 참여자는 "혼자 만드는 작품과 달리 여러 사람이 함께 협력해 하나의 큰 작품을 완성하는 과정이 즐거웠고,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가족명랑운동회를 위해 소중한 시간과 재능을 나누어 주신 풍선아트 동아리와 지역사회 공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가족들이 함께 즐기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이 주체적으로 동아리를 운영하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지은 기자

"기후 행동가 직업체험해요"

평택시가족센터,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6월 13일 다문화가족 자녀 20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의 '기후 행동가 직업체험'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기후 변화와 환경 분야의 직업세계를 이해하고,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후 행동가의 역할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 변화가 미래 사회와 직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또한 미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한 진로설계 방법을 배우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와 적성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들은 활동지를 활용해 자신의 미래 직업을 직접 설계하고 친구들과 생각을 공유하며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 진로 목표를 설정할 수 있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기후 변화가 미래 직업과도 연결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며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다시 생각해보고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해볼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미래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직업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녀들이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Dream Road)」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11월까지 직업체험, 대학탐방, 직업인 특강, 진학설명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품앗이 구성원, 결속력 강화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전체모임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13일 서울랜드에서 돌봄품앗이 회원 128명을 대상으로 '돌봄품앗이 전체모임'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돌봄공동체 품앗이 구성원 간 정보 공유와 결속력을 강화하고, 친밀감 및 정서적 유대감을 향상하여 지속적인 품앗이 활동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전 연령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공원에서 진행하여 가족별, 그룹별, 호점별 결속력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물놀이를 비롯하여 여러 놀이기구들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미리 지정해놓은 장소에서 가족과 그룹 간 사진을 찍으며 미션을 수행했다. '담당자를 찾아라!!'코너에서는 서울랜드 내에서 담당자를 만나 가족 즉석 사진을 찍는 행운도 가졌다. 참여자들은 "친구와 같이 가족단위로 놀이공원을 오니까 아이가 가족끼리 올 때보다 몇 배는 더 즐거워 했어요.", "더우셨을 텐데도 힘든 내색 없이 진행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모임으로 구성원들 간 연대감이 높아졌고 좋은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좋았어요." 등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품앗이 활동의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앞으로도 돌봄 품앗이가 돌봄 공동체로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가족센터에서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내외국인 함께 문화소통해요~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15일과 18일 지역 내 다문화·비다문화 주민 40명을 대상으로 내외국인 문화소통 프로그램 '차량용 석고방향제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내외국인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교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다문화 수용성과 상호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회기별 20명씩 총 4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운영됐다.

참여자들은 차량용 석고방향제의 발향 원리를 이해한 후 석고몰드 제작, 채색, 송풍구 결합부 조립 등의 과정을 직접 체험하며 자신만의 방향제를 완성했다. 또한 작품 제작 과정에서 서로의 취향과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프로그램 마무리에는 참여 소감을 공유하며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내외국인 주민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다문화 수용성을 높이고,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이해를 심고 공감을 키우다"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12일과 19일,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다가온에서 결혼이민자와 내국인 여성 15명을 대상으로 '이해를 심고, 공감을 키우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며 건강한 소통과 공감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그림을 활용한 성차별 사례 찾기 활동을 통해 일상 속 성 역할 고정관념과 차별 요소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름 리스 만들기 원예 힐링 프로그램에 참여해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참여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나누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문화와 가치관을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건강한 소통 방법을 배웠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자녀, 직업체험 진행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20일 다문화가족 자녀 31명을 대상으로 진로설계지원사업 「드림로드」의 '항공승무원 직업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항공 분야 직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가자들은 현직 항공승무원으로부터 승무원의 역할과 업무, 직업 준비 과정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후 항공승무원 유니폼을 직접 착용하며 직업 현장을 간접 체험했다. 특히 승무원에게 필요한 역량과 준비 과정을 알아보며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다.

이지은 기자

• 가족영화관람 •

무비캉스

쿨썸머 무비데이

✻ 1차 : 2026. 7. 25.(토) 오전 10시
✻ 2차 : 2026. 7. 29.(수) 오전 10시

상영영화

우연히 영화 촬영장에 난입한 미니언들이
세계적인 무지스타로 거듭나며 벌어지는 이야기

영화제목 : 미니언즈 & 몬스터즈
무료제공 : 영화관람 예매 티켓
관람인원 : 1차 → 7. 25.(토) 200명
2차 → 7. 29.(수) 100명

신청안내

신청일시 : 2026. 6. 8.(월) 10:00 ~ 모집 마감시
신청방법 :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QR참고)
참여대상 : 관내 6세 이상(2020년생) 자녀를 둔
다양한 가족 300명
관람장소 : 평택 CGV (평택 AK)
기타문의 : 가족지원팀 031-615-3952



1차

2차

참고사항

* 관람 희망자 전원 신청서 접수해야 함. 가족 중 1명만 신청하거나 가족 확인이 어려운 경우 대기자로 전환됨
* 기존 센터 프로그램 신청 후 무단 불참, 당일 취소자, 전년도 참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됨
* 신청완료시 화면에 표시되는 팝업 순번은 접수 번호일 뿐 확정 번호가 아님(선착순 아님)
* 신청한 일자는 다른 일자로 변경이 불가함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PYEONGTAEK CITY FAMILY CENTER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청소년기부모교육

- 위기의 청소년기, 부모라는 정서적 안전기지 구축하기

대 상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 15명
* 참여 희망 시, 자녀 연령에 관계 없이 신청 및 참여 가능합니다.

방 법 온라인 실시간 ZOOM 강의

신 청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회기
with. 심리상담센터 오롯 박선영 상담사
7/15(수) 19:00~21:00
우리 아이는 정말 괜찮을까?
- 청소년기 뇌&정서 발달 특성 이해
- 우울, 자살, 마약, 도박 등 위험 신호 파악
- 문제 행동 이면의 심리적 욕구 이해

2회기
with. 심리상담센터 오롯 박선영 상담사
7/15(수) 19:00~21:00
부모는 해결사가 아니라 안전기지입니다.
- 정서적 안전기지 의미 이해
- 위기 상황에서 도움되는 부모의 대화법
- 실제 적용 가능한 감정코칭 기술 습득

문 의 가족지원팀 031-615-3962

★ 모든 회기(2회기)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부모교육 우수 참여자의 경우 향후 진행 될 양육스트레스 해소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소기간 이후의 취소 및 교육 당일 무단 불참은 다른 신청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 및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신청하기

부모역할지원사업 [평택부모학교]

다문화부모교육

대 상 다문화가족 5~9세 자녀 및 부모 8가족(16명)
* 언어발달지원사업과 연계 진행 예정

장 소 평택시가족센터(평택시 서정로 295, 북부복지타운 1층)

신 청 평택시가족센터 홈페이지 신청
: 홈페이지 로그인 → 프로그램 안내 → 프로그램 신청(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회기
with. 한국강사교육인협회 심선민 대표
7/11(토) 10:00~12:00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그림책 부모교육 & 활동

2회기
with. 미노천연공방 김미나 대표
7/11(토) 12:00~13:30
가족 천연 버블바 만들기
* 가족 당 키트 1개 제공

문 의 가족지원팀 031-615-3962

★ 모든 회기(2회기)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며, 부모교육 우수 참여자의 경우 향후 진행 될 양육스트레스 해소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취소기간 이후의 취소 및 교육 당일 무단 불참은 다른 신청자에게 참여 기회를 제한하게 되므로 반드시 취소기간 내 취소 및 사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신청하기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2026년 온가족보듬사업

우리가족 성교육교실

7월 25일(토) 10:30~12:00
- 초등1~3학년 + 양육자 (6가정)
- 버스체험관 성교육(생명의 탄생)
- 성평등볼펜 꾸미기

7월 25일(토) 13:00~14:30
- 초등4~6학년 + 양육자 (6가정)
- 버스체험관 성교육(사춘기)
- 성평등볼펜 꾸미기

장소 : 평택시가족센터 상담분소(평택시 중리길1)
모집기간 : 6월 22일 ~ 마감시까지(7월 24일 부모교육 신청자 우선)
문 의 : 031-647-3097

가족센터 평택시가족센터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신감 갖고 역량 발휘해요

평택시가족센터, 글로벌 레인보우스쿨사업 수료식…노력과 성장 축하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6월 19일, 센터 다목적실에서 글로벌 레인보우스쿨 수강생과 내빈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레인보우스쿨 수료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료식은 고덕레인보우로타리클럽(회장 남미화)의 후원으로 운영된 글로벌 레인보우스쿨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결혼이민자들의 노력과 성장을 축하하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료식은 교육과정 운영 경과보고, 수료증 및 상장 수여, 내빈 축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 과정에 성실히 참여한 수강생들에게 개근상과 우수참여상을 수여해 그동안의 노력과 열정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료생들은 교육과정을 통해 한국어 능력과 지역사회 적응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남미화 회장은 "수료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배움을 통해 얻은 자신감과 경험이 앞으로의 삶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글로벌 레인보우스쿨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모든 수료생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감을 갖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한국어교육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협약 퍼스트어린이치과 체결

평택시가족센터는 6월 19일 퍼스트어린이치과(원장 박기봉)와 지역사회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연계하여 아동과 가족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가족 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아동 및 가족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정보 제공 및 교육 지원 ▲가족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 연계·홍보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교류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사항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가족 복지를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박기봉 원장은 "지역사회 가족들을 위한 뜻깊은 활동에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필요한 곳에 도움을 전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아빠랑 플레이데이, 영아 실내 동물원 체험 및 유아 신체활동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6월 13일, 쥬쥬핑월드에서 영아기 자녀와 아버지 총 20명(10가족)을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양육 참여를 확대하고 영유아기 자녀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영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체험활동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여가를 즐기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운영됐다. 이날 참여자들은 실내동물원을 자유롭게 관람하며 다양한 동물을 만나고, 동물 먹이주기 체험과 동물 도슨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영아기 자녀들은 동물과 직접 교감하며 호기심을 키우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배울 수 있었으며, 아버지와 자녀는 함께 체험에 참여하며 친밀감을 높였다.

특히 전문 도슨트의 설명을 통해 동물의 생태와 특징을 알아보는 활동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같은 날 챔피언1250X에서 유아기 자녀와 아버지 총 20명을 대상으로 '아빠랑 플레이데이'를 진행했다.

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 신체활동 중심의 체험을 통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여가를 즐기며 친밀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대형 놀이시설을 활용한 대근육 활동과 블록놀이, 조작놀이 등 소근육 활동에 참여하며 신체 발달과 창의력을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아버지와 자녀가 다양한 놀이기구를 함께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특히 자유로운 놀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가 자녀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은미 센터장은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하는 경험은 자녀의 건강한 성장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부모역할 강화를 위해 다양한 가족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역할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인터넷에서 파파야스토리를 검색하세요,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만날 수 있어요〉

이지은 기자

서로의 생각과 감정 나누며 이해·공감

평택시가족센터, 가족키움데이 6월 프로그램 운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6월 13일과 27일,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를 둔 가족 32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진사업 '가족키움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성향과 강점을 이해하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1회기에서는 MBTI 리디자인을 활용한 가족 소통 프로그램과 '강점을 살리는 향수 처방전' 활동을 진행했다. 참여 가족들은 가족 구성원의 성향과 강점을 알아보고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누며 이해와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2회기에서는 가족이 함께 소시지롤빵을 만드는 요리활동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재료를 준비하고 빵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협력하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였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가족들은 "가족의 성향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고 활동하며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다", "함께 만든 빵을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가족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강점을 발견하는 경험은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는 가족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가족교육과 가족관계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이 함께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해군 제2함대 군인가족 불교문화 체험 진행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6월 20일 포승읍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에서 해군 제2함대 군인 16가족을 대상으로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 '마음의 닻, 수도사에 내리다'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군인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힐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대한불교조계종 수도사 주지 적문스님의 진행 아래 사찰음식 만들기 체험과 참선·명상 체험에 참여했다. 또 사찰음식 명장인 스님의 지도를 받아 연근지짐, 옥수수장떡 등 건강한 사찰음식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원효대사 깨달음 체험관을 방문해 원효대사의 가르침과 수행 정신을 배우고, 명상과 참선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돌아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시간을 보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이 군인가족들에게 재충전과 힐링의 시간이 되고, 가족 간 소통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과 가족들의 행복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1·2·4호점 구연동화 연계 오르프 음악여행 프로그램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1·2·4호점은 5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관내 영유아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음악 감각 지원 프로그램 '오르프 음악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마라카스, 에그쉐이커, 핸드드럼 등 친숙한 악기와 롤리팝 드럼, 징글 스프레이, 옥수수 셰이커, 클라베스 등 다양한 악기를 활용해 음악놀이 활동을 진행하고 구연동화와 연계한 노래, 율동, 신체 표현 활동을 통해 영유아들이 음악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초반에는 새로운 환경과 활동을 낯설어하던 영·유아들이 회기가 거듭될수록 리듬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고 신체 표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다양한 음악놀이 활동을 통해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뜻깊은 시간이 된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보호자들은 "프로그램 시간이 아이의 낮잠 시간과 겹쳐 걱정했지만 리듬에 맞춰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강사님의 밝은 에너지 덕분에 아이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악기를 직접 만지고 체험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공동육아나눔터 3호점은 이번 프로그램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르프 음악여행'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영유아와 보호자들이 음악을 매개로 소통하고 성장하는 뜻깊은 시간을 경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평택시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가족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